민즁뎐 힝장녹

言師採

言師採

言師採

言師採

言師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민즁젼 힝장녹

유명조션국 슉종대왕 시졀의 즁궁을 간택ᄒᆞ옵시니 만조백관의 여ᄌᆞ을 ᄲᆞ시ᄃᆡ 백ᄀᆡ의 녀ᄌᆞ을 ᄲᆞ시고 녀ᄌᆞ의 ᄒᆞ나을 ᄲᆞ시니 ᄃᆡ의 과인ᄒᆞ시ᄂᆞᆫ 봉ᄒᆡ이 ᄲᆞ여ᄂᆡ여 늑즁비빙의 즁 특츌ᄒᆞ오 샤ᄋᆡ의 이조판셔 통즁ᄉᆞ부 ᄎᆞᆷ공 민의외손이오 병조판셔 민동의 여ᄌᆞ시라 평마ᄉᆞ뢰 영샹 일의 탄ᄉᆡᆼᄒᆞ옵시니 부인 송씨 거ᄒᆡᆼ을 어ᄃᆞ시니 ᄐᆡ쳔

의흥일이 ᄀᆞᆨᄒᆞ 뫼고 실ᄒᆞᆼ의 해ᄒᆞ혀
봉비ᄒᆞ여 홍쳔을 탄식ᄒᆞ시니 아셰를 보ᄂᆡ
혀 ᄒᆞᆼ상 벽기 상치 아닌 ᄎᆞᆫ 중별 뎡ᄂᆡ을 글
나 츤곤ᄀᆞ이 어ᄂᆡ ᄉᆞ시니 ᄃᆡᄀᆡ셩이 츌ᄒᆞ여옷 화ᄒᆞᆫ
가온ᄃᆡ 어ᄂᆡ 쳥ᄉᆡᆨ ᄒᆞᄃᆞᆫ 구회 죵을 나ᄒᆞ여 마시
못ᄒᆞ오니 낙츌 복의 덕을 ᄀᆞ르시ᄃᆞ 호후
츌쳘ᄒᆞᆫ여 놉흔 쳘리 ᄎᆞᆷ 빅을 능 뵈
츌젼치라 츙찬ᄒᆞ여 경복 아니라 ᄒᆞ엿ᄉᆞ
상회 쳬쥭 부ᄒᆡ 홍ᄒᆞ여 어ᄃᆡ여 일ᄂᆞᆫ가 ᄉᆞᆼ
희 ᄃᆡ욕고ᄒᆞ여 쳔ᄂᆞᆫ 미ᄂᆞᆫ 공은 만ᄒᆞᆫ대 지어 필
쥭을 ᄆᆞᆯ고 연ᄒᆞ여 을 ᄎᆞᆷ고ᄂᆞᆫ ᄒᆞ여 고죵 혼 글ᄒᆞ여 ᄒᆞᆯ
지국희 즁쳐ᄒᆞ라ᄂᆞᆫ 셔ᄂᆞᆫ 뎡시 ᄎᆞᆼ촉 외ᄒᆞᆫ 후
기부시 승하ᄒᆞ시니 왕ᄃᆡ비 젼의셔 ᄀᆞᆫ이 ᄀᆡ

오리 뷔이므로 즉시 ᄒᆞ순되여 ᄂᆡ울ᄀᆞᄒᆞ
시ᄂᆡ그씨 천ᄒᆞ 복원ᄒᆞᆫ 김씨 즉가 즁국의
텬텰 듯이 ᄒᆞᆫ 모ᄅᆞᆯ 이여ᄒᆞ이 ᄂᆞᆫ고로 ᄃᆡ쳔의
텬ᄒᆞ 산ᄒᆞᆫ ᄒᆞ여 드른 ᄃᆡ로 죽ᄒᆞᆯ ᄂᆞ되 비 ᄃᆡ회
즁ᄉᆞ 방ᄋᆞᆯ 기우ᄒᆞ여 방미ᄅᆞ 즈흐ᄒᆞᆫ 셰류 미공
의게 뎐ᄀᆞ 즈흣ᄒᆞᆫ 군의 뵈오로ᄀᆡ 비기 세ᄀᆞ 보ᄂᆡ
불평ᄒᆞ도 ᄂᆡ 군은 그의 ᄋᆞᆺ고 ᄒᆞ이 ᄃᆡ여을 ᄒᆞ
하ᄒᆞ새 니 민ᄉᆞᄋᆞ이 황숑ᄒᆞ여 즉시 즁을
울여 지 즉히 ᄉᆞᆼ ᄒᆞᄋᆞ 반ᄒᆞᆫ이 가 즉ᄒᆞ
나 상이 ᄒᆞ 천의 텬ᄀᆞ 울 드되 ᄭᅢ닷지 ᄒᆞ
엇지 ᄀᆞ치 ᄂᆡ 잇ᄉᆞ리오 오지ᄒᆞ여 치울 ᄂᆡ히온
디ᄀᆞ 일 과을 ᄂᆡᆼ ᄒᆞ여 기 인을 을 디ᄀᆞ ᄒᆞ

세여만 공이하여서 수행치 못ᄒᆞ여 뵉구총의
쥬회와 황공불안ᄒᆞ나 일면 쳔ᄒᆞᆫ 은혜을
갑지 못ᄒᆞ여 충의 ᄯᅳᆺ이 더러지 못ᄒᆞ엿
지 못ᄒᆞ여 ᄒᆞᆫ 이런 큰 길이 업ᄂᆞ이다 ᄒᆞ고
위의 불진비ᄒᆞ며 티네 울게 축ᄒᆞᆯ세 상
이 육제 올가 ᄒᆞ야 별공의 거ᄒᆞ고 충ᄉᆞᆼ 옥상
의 ᄒᆞᆫ을 쳔ᄒᆞ서고 쳔지가 변ᄒᆡ ᄒᆞ신후
쥼궁의 삼공을 저 ᄒᆞ즉 ᄒᆞᆫ 봉션을 ᄎᆞᆺᄒᆞ여
봉리 ᄒᆞ서고 더 ᄃᆡ호 ᄒᆞᆫ라 ᄂᆞ셔 ᄂᆞ려 친ᄒᆞᆯ 보ᄒᆞᆷ
셩의 쥭ᄒᆞ니 불ᄉᆡᆼ도 시비 ᄒᆞ며 이ᄉᆞ고 녹의 ᄒᆞ셩
쥭취ᄒᆞᆯ ᄂᆞᆫ 훈ᄉᆞ 이셔 피ᄒᆞᆫ 물 져 ᄇᆡᆼ ᄒᆞᆫ 쟝유
의 ᄂᆞ 별 ᄒᆞᆫ고 ᄒᆞᆫ 취 시 ᄂᆞ 의 ᄉᆞᆼ 이 고 ᄒᆞᆼ
악이 쳔 ᄒᆞ며 의ᄀᆡ 봉치 ᄒᆞᆫ여 뵈ᄋᆞ 칭ᄒᆞᆫ ᄒᆞ니

물이로 측양치 못ᄒᆞᆯ러라 여산 ᄇᆡᆨ셩이 길
이ᄯᆡ 만세을 축슈ᄒᆞ더라 흥셩쳔의 드옭
상이ᄒᆞ로 더부러 ᄉᆡ녁셕을 파ᄒᆞ시고 ᄒᆞᆫ상을
난ᄒᆞ시미 이ᄉᆞ리을 갈와 되왕뎨 비쳔의 상을
비일ᄒᆞ시니 뎌 빅셩쳔의 덕을 닙ᄉᆞ당ᄒᆞᆯ셰
놉뫼 측뇔ᄒᆞ시 물뎌희ᄒᆞᄉᆞ 위층ᄒᆞ기
울죽 텬이 ᄒᆞ시더라 이날 민희 곤위의 올ᄂᆞ스
측중 ᄲᆡ빙과 상쳔 중화을 밧드시니 이후와 화
창ᄒᆞᆯ 혜ᄌᆞᆼ이 스ᄉᆞᆸᄉᆞᆸᄒᆞ며 상오ᄒᆞ며 봉졀을 들
너ᄉᆞᄒᆞ니 진지 뒤련 죽ᄂᆡ 죽위ᄒᆞᄂᆞᆫ 주름ᄒᆞ니 ᄂᆞᆯ너
라 희 곤위의 올ᄂᆞ 우ᄒᆞᆯ 양쳔을 밧들믜
츅쳔ᄒᆞᆫ 호쌍ᄒᆞ로 ᄃᆞ〻ᄒᆞᆫ 츅〻ᄒᆞᆫ 측셜 상이 미 방
니 조의 ᄃᆞ시션 덕을 셰인 즈ᄒᆞ셰고 아리로

비빈과 즁셔ᄅᆞᆯ 거ᄂᆞ리샤 화리 만번 ᄒᆞ리라
독ᄒᆡ 비ᄌᆞ 즁ᄃᆡ과 의ᄒᆞ엿ᄉᆞᆯ 샹어 공평 즁되 ᄒᆞ엿ᄂᆞ니
즁ᄒᆞ오 ᄒᆞᆫ 뻬ᄅᆞᆯ 복즁 더라 독되 비ᄋᆞᆸ ᄂᆞᆯ로 ᄉᆞᆺ 궁즁
승관셔졔 즁젼을 못니기시ᄆᆡ 화리 샹면
ᄒᆞ더라 만복의셔 슈황ᄒᆞᆫ 물이 되지 못ᄒᆞ더
라 ᄒᆞ월회에 창셰 배로소 후 즁의 환ᄉᆡᄒᆞᆫ
니 벗셔 신쳠답 화령ᄒᆞ니 ᄌᆞ못 흉히 ᄒᆞ셔
라 졔회 즁의 샹이 쇼홰 비평ᄒᆞ시니 홰 그
지 엿ᄌᆞ오ᄃᆡ 쥬야의 ᄉᆡᄅᆞᆯ 그ᄅᆞ지 아니시ᄂᆞᆫ 뎡셩
을 다ᄒᆞ여 쳔지 리리로ᄒᆞᆫ 평셩이 아니셰
즐 ᄀᆞ지 ᄋᆞᆸ셔ᄂᆞᆫ 되 배ᄉᆞ오ᄒᆞᆫ ᄌᆞ시나 ᄒᆞᆫ 번 동셜ᄒᆞᆫ
의 ᄒᆞ올 더 복ᄒᆡ 찬 ᄉᆞᆯ의 ᄋᆞ쇄를 ᄇᆞᆨ욕ᄒᆞ
시고 친이 후 ᄇᆞᆫ 빈의 단을 ᄊᆞᆯᄀᆞ 주ᄂᆞ 아올 졔

아리지 아니시고 ᄌᆞ연으로 ᄆᆞᄃᆞ즈원 ᄒᆞᆷ에셔 창뎐
이 강ᄉᆡᆼᄒᆞᆫ 가 만ᄒᆞᆫ 가온ᄃᆡ 오욕ᄒᆞ고 ᄒᆞᆷ에셔 미셰
샹이 ᄒᆞᆺ 령복 ᄒᆞ여 신셔이 되ᄋᆞᆸ는 ᄌᆞᆼ쳔
과 리 비쳔의 쳐ᄒᆞ거 ᄒᆞ시믈 의로 그ᄌᆞᆨ지 못ᄒᆞᆯ
녀와 뎌왕 뎍 비샹이 시텽ᄒᆞ실 쳬ᄒᆞᆫ 셩을 ᄭᅮ
룹쓰시고ᄂᆞᆫ ᄒᆞ시믈 옥쳬 ᄌᆞᆺ샹ᄒᆞᆫ 병ᄒᆞᆫ
이 위즁ᄒᆞ셔셔 샹과 회ᄀᆞ케 ᄋᆞᆨ패ᄒᆞᆫ에 시측ᄒᆞ,
슈은ᄒᆞᆫ ᄒᆞᆫ믈 ᄭᅡ지 아니ᄒᆞ사고 ᄃᆡ신을 명ᄒᆞ여
종묘와 ᄉᆞ직을 빈ᄒᆞ나 ᄒᆞ시고 조셔을 나리와
ᄒᆞᆫ리 ᄋᆞᆨ순 ᄒᆞ시ᄂᆞᆫ 지ᄇᆡᆼᄇᆡᆫ이 ᄒᆞᆫ을 ᄒᆞᆫᄂᆞ셔
ᄂᆞ즈의 ᄆᆞ옴은 의ᄃᆞᆯ을 더부러 약셕믈의
논ᄒᆞᆫ에 의약을 ᄯᅢ 의시기 ᄒᆞ뢰 마ᄎᆞ니로
텀을 ᄇᆞ지 못ᄒᆞ셔나 장과 회ᄒᆞ이 ᄒᆞ시ᄂᆞᆫ

진동ᄒᆞ시더라 남월을 ᄎᆞᆯ열의 되비
승ᄒᆞ야 ᄒᆞ시니 상과 희 망극의 통ᄒᆞ여 궁즁 송
희 그졍ᄒᆞᆷ을 탄복ᄒᆞ더라 희 더옥 의ᄒᆞᆫ
ᄒᆞ시니 상이 감체을 드되외오 ᄌᆞ서ᄒᆞᆫ 희 또ᄒᆞᆫ 상
의 북쳬 상ᄒᆞ실가 ᄒᆞ여 과도ᄒᆞ고를 감ᄒᆞ
시더라 이번 ᄌᆞ리 ᄒᆞ신 ᄌᆞᆫ예 울당ᄒᆞ여 혼젼
을 뫼ᄒᆞ시니 상과 희 심통이 망극의 통ᄒᆞ시더
라 상이 통곡 농셩ᄒᆞ고 ᄒᆞ시셔이 되시니 국강령
상을 보시고 ᄒᆞ시니 희 크게 근심ᄒᆞ사 일ᄎᆞ 혼ᄌᆞ
우 ᄌᆞᆷᄌᆞᆷᄒᆞᆫ 흔들인 ᄒᆞ여 상과 공비 ᄉᆡᆨ 서믈권
ᄒᆞ시니 말ᄉᆞᆷ이 심히 간졀ᄒᆞ신 텰셩의 소
ᄉᆞ나니 상이 드리여 마ᄋᆞᆷ을 다ᄒᆞ야 쳐조졍의

뎐치을 나리오셔 혹 궁안 뎍ᄒᆞ시믈 ᄂᆞ뢰
옵시나 연안 공쥐 ᄒᆞ고 공올을 그지 ᄂᆞᆯ나 ᄌᆞ궁
쥭올 다려 이ᄇ 쥘을 ᄒᆞ여 샹긔 뎐ᄒᆞᆫ 후 ᄌᆞᆼ싸
시미 가치 아녀시 블즉ᄒᆞ되 휘 ᄌᆞᆨ 우희 미쳐 계
시다가 공쥬 등의 간 이올 드올시ᄂᆞᆫ 뎡ᄒᆞ니 ᄃᆡ왈
니가 더ᄒᆞ이 으신 미ᄃᆞᆺᄒᆞᆫ 모올 쳔샹의 ᄒᆞ올
일ᄉᆞ여 즁ᄉᆞ여 쳐ᄒᆞ여 ᄌᆞᄂᆞ여 디 바ᄂᆞ 병ᄒᆞ여 ᄎᆞ
약올은 싱ᄒᆞᄂᆞᆫ 밧ᄂᆞᆫ 옷 쳔의 쟝ᄃᆞ라 되비 쳔
병올을 갈ᄉᆞ치 못ᄒᆞ니 다ᄒᆞ여 ᄃᆡ어 가치 혹
뢰즁ᄒᆞ여 ᄒᆡᆼᄉᆞ 휼ᄌᆞᆨ이 업ᄉᆞ시니 이ᄂᆞᆫ 즁ᄉᆞ
의ᄋᆞᆫ 신이오 ᄅᆡ뎡의 죄여다 엇지 ᄉᆞᆯᄒᆞᆫ
투ᄅᆞ도ᄭᅴ 즁ᄉᆞ올 변ᄒᆞ여 셔ᄆᆞᆫ니 뒤으 ᄯᆞᆯᄉᆞᆯ
ᄲᅡᆨ치ᄇᆡ 안ᄃᆡ이 여ᄉᆞᆨᄒᆞᆫ 여 뎐ᄒᆞ여오ᄂᆞᆫ

즁ᄒᆞᆫ 나ᄂᆞᆫ 지라 공쥬 등이 ᄒᆞᆫ갈ᄀᆞᆺ치 갈ᄋᆡ다저
간희ᄒᆞᆫ 곳ᄒᆞ여 셔로 쳥ᄒᆞ되 을 칭찬ᄒᆞ여 도ᄅᆞᆫ
며랑ᄒᆞᆫ 듕에셔 슉위 ᄲᅧᆼ치 을 ᄒᆞᆨ 궁외로 져니 회에
로셔 리 졔셥 ᄒᆞ여 은혜로 다 ᄂᆞ리시니 그러ᄒᆞ올외
와 다복ᄒᆞ ᄒᆞ더라 시온이 불 ᄒᆞᆼ ᄒᆞ여 연ᄒᆞ이
외회 ᄉᆞᆫ로와 연치 이 ᄒᆞ여 울고 미스 ᄒᆞ로 즁고
로셔 연ᄂᆞ 슉여ᄂᆞᆫ 러ᄉᆞᆫ 츙신 치ᄉᆞᆺ ᄒᆞᄋᆡ
연치 ᄒᆞᆫ 울이 무셥 ᄒᆞ셔을 한치ᄒᆞ니 라도셔 ᄀᆞ로
상여ᄉᆞᆼ 모의 추치 ᄒᆞᆫ무을 면ᄒᆞ고 ᄯᅩᄒᆞᆫ 회ᄂᆞ 황
의유 리지 되여 을 면치 ᄉᆞᆺ ᄒᆞ여 ᄯᅩ한 회의ᄃᆞ
무션 ᄒᆞ쥬 쥘ᄒᆞᆯ의 ᄯᅵ내 로셔 ᄉᆞᆼᄒᆞ여 셔ᄂᆞ 상여다
회망ᄒᆞ의 ᄅᆞᆷᄒᆞ셔고 조ᄒᆞ여 ᄒᆞᆨ옵외 셜에 ᄒᆞ시ᄅᆞᆯ
마지 아니ᄒᆞ여 더라 ᄀᆞ회 ᄅᆞᆼ 실ᄲᅩᆯ ᄂᆡ 회빈

장씨 최욕을 만흔 줄 탄식ᄒᆞ야 샹이 과히 ᄒᆞ
시믈 이로지 말고 회 더 엄ᄒᆞᆫ 이로 최소왕은
시믈 리ᄎᆞᆯ 의셰지우 더라 ᄒᆞ셜도리 비승하
ᄒᆞ지ᄇᆞᆯ 국북히 ᄒᆞ야 회어이 날노 심ᄒᆞ야 창
ᄒᆞ셰ᄂᆞ 국ᄒᆞᆫᄒᆞ야 샹끠 드ᄅᆞ이니 샹이 변ᄒᆞ옴을 밋지
아니ᄒᆞ셰 긴니 보리ᄭᅴ 복온니 쳬쇠ᄒᆞ여 이ᄅᆞ구
봉은 멸뢰ᄒᆞ시니 회비ᄒᆞ지 온뢰 ᄋᆞᆸ시나 한공
ᄒᆞ여 더욱 ᄎᆞᆷ시ᄎᆞᆷ혀 ᄒᆞᆫ 쳔외로 ᄒᆞ시믈 돕ᄒᆞ
ᄒᆞ시나 조ᄎᆞ로 ᄀᆞ기 회ᄒᆞ시미 ᄋᆞᆼ연ᄒᆞ라 졀셰 션졀
호ᄂᆞᆫ 무례ᄌᆞ 욱인을 축출ᄒᆞ야 공줏의ᄌᆞᆨ
그 ᄉᆞᆼᄋᆞᆼ 법씨 조혜ᄋᆞᆯ 장희 ᄌᆞᆨ라ᄒᆞ야 간
한계 ᄌᆞᆼ울 빌ᄒᆞ야 치ᄋᆞ올 짓ᄂᆞᆫ지라 ᄎᆞᆼ중
편ᄇᆞᆫ ᄃᆡ ᄒᆞᆫ ᄆᆞᆯᄋᆡ 날노 ᄉᆡᆼ휑ᄒᆞ여 샹이 장

씨 울려옥뎐에 ᄒᆞ시든 흥칙을 바다되 ᄒᆞ시ᄂᆞᆫ간
믄흑ᄒᆞᆫ 뉵을 ᄡᅡ이ᄂᆞ와 젼을 ᄇᆞᆯ고 ᄒᆞ셔든 젼셔 ᄡᅡ여
각ᄒᆞ시ᄃᆡ라 ᄃᆡ ᄉᆞᆫ연 ᄉᆞ쇨을 언ᄉᆞᆼ에 오온 흥졍ᄒᆞᆫ
탄ᄒᆞ올이시나 가ᄒᆞ라 니 ᄉᆞ의 쳐 공샹 ᄃᆞᆫᄒᆞ올
드듸여 샹이 명ᄒᆞ예 ᄒᆞᆫ 도ᄌᆞᆯ 나리시고 은ᄉᆞ 을
흑뢰의 ᄉᆞ드라 ᄒᆞ셔ᄂᆞ 좌신ᄒᆞ라 일ᄒᆞ여 ᄉᆞᆫ은 ᄃᆡ
셰ᄒᆞ라 ᄒᆞ셔니 좌ᄒᆞ치에 ᄡᆞᆯ이 가차여 ᄒᆞᆫ믈간
ᄒᆞ시니 샹이 여ᄂᆞᆫ 흥ᄒᆞᆫ 됫찬ᄒᆞ라 ᄒᆞ셔든 뎐비ᄡᆞᆼ
거울에 ᄉᆞ졀이 나리ᄉᆞ이 조졍이 진졍ᄒᆞ여 졍
뫼ᄂᆞᆯ 변ᄒᆞᆫ ᄒᆞᆫ 다ᄅᆞᄂᆞᆫ 회ᄒᆞ나 실노 쳥쳥
은ᄒᆞ시여 ᄒᆞᆫ 마치 ᄒᆞᆫ여 졍ᄒᆞᆫ에 ᄒᆞ와 ᄒᆞᆫ
하ᄒᆞ혀 ᄒᆞᆯᄂᆞᆫ지나 예 조과 세민 조흔 ᄒᆡ 평ᄒᆞᆫ가
외ᄒᆞᆫ을 벗져 ᄃᆞᆯ이고 리 ᄉᆞ연 ᄂᆞᆨ 칭쳥ᄒᆞᆫ 졍

쳥운으 연쳥ᄒᆞ여 ᄆᆞ을 나ᄒᆡᆯ 간셥이 망영된 ᄒᆞ
나 ᄆᆡᆨ감을 기ᄂᆞ리ᄂᆞ 쳔ᄂᆞᆯ 젼ᄉᆞᆼᄒᆞᆫ셔 ᄉᆞ월죽
즁쳔 ᄯᅢ ᄒᆞᄆᆞᆫ ᄋᆞᆸ는지라 상이 ᄌᆞ든산 간 언이 업치
ᄒᆞᆼᄒᆡᆼ이 업ᄉᆞ리오 이쳑의 붕고ᄇᆡᆨ 퇴ᄒᆞ며 가지ᄭᅳ 즁
외이시리ᄋᆡ 못ᄒᆞ물로 쳥쌍의 실ᄒᆡᆼ ᄒᆞ셔물 ᄀᆞ르신 ᄒᆞ
고버셔로 즁쳔의 외벼 ᄒᆞᆫ시ᄆᆞᆯ ᄒᆞᆼᄇᆡᆨ ᄒᆞ여ᄆᆞ
듣ᄌᆞ오ᄆᆡ 직ᄉᆞ홀 ᄃᆞ두ᄅᆡᆫ ᄉᆞ랑을 ᄯᅩᄒᆞ이 일시의 상소ᄒᆞᆫ여 즁
쳔을ᄀᆞ 힝ᄉᆞ 텬쳐 보졍이 소듀ᄒᆞ고 쳥ᄒᆞᆫ이
셰화ᄂᆞᆫ 소셕ᄒᆞ되 고 바ᄀᆞ라 ᄯᅩ 소득 되여 상소를
뎌갈오ᄃᆡ 이ᄭᅧᆺᄂᆡ 호부비 듀셔ᄆᆞᆫ 조뎡 ᄃᆡ계 듕ᄒᆞᆯ
이어 모ᄅᆞᆫ 벽셩 우의 앙ᄒᆞ여 만셰을 고ᄒᆞᄂᆞᆫ
쳥ᄃᆡ ᄂᆡ살이 ᄭᅬ 졀ᄒᆞᆫ 만민의 부ᄂᆞ리여 모ᄅᆞᆫ
니 흉ᄒᆞᆫ 것슬 나라ᄒᆞᆯ 다ᄉᆞ리여 일이 ᄒᆡᆼ치

못ᄒᆞᆯ거슬 힘ᄡᅳ고ᄌᆞ ᄒᆞ시나 이는 신셰의 바라든
바로 ᄌᆞ이 아닌 ᄒᆞ여 본샹의 츙 ᄒᆞᆯ 고셔의 왈 보
본의 슈샹을 가지지 아닌 가이 바리지 못 ᄒᆞ리라 ᄒᆞ
옥시 편ᄒᆞᆫ ᄭᅴ셰 ᄌᆞ쳔ᄒᆞᆫ 글로 더 부허 쳔ᄒᆞ의 슝
년을 ᄀᆞ초지 아니시니 이제 퇴왕 퇴비 쳔샹 복을 ᄒᆞᆫ
가지로 미녕에 ᄃᆡ죵 복지 못ᄒᆞᆫ ᄊᆡᆺ스니 비록 허낭
이엿셔로 가히 쳬제 못ᄒᆞ시리는 ᄒᆡᄒᆞ여 ᄇᆡᆨ 복낭퇴
ᄒᆞ시ᄆᆞᆯ 아ᄂᆞᆫ ᄇᆡᆨ하 으셔 ᄊᆡ 셰와 일ᄂᆡ 스리 복낭ᄒᆞ
슌당ᄒᆞ시는 바 ᄉᆞ 건의 ᄎᆞ로 공경ᄒᆞᆷ라 ᄒᆞ여 ᄀᆞ을리
펀ᄃᆡ의 ᄌᆞ쳔을 이로 ᄇᆞᆫ쳐 ᄒᆞᆫ단ᄒᆞ시는 변으로 쳔
ᄒᆞ의지국 ᄒᆞ신 쎵ᄒᆞ로 ᄡᅦ 아ᄌᆡ ᄒᆞ사 이를 을
샹ᄒᆞ와 ᄌᆞ쳔을 ᄭᅦ ᄒᆞᆫ 보ᄒᆞ와 복원 젼ᄒᆞᄂᆞ니
명빈ᄭᅴ 허ᄉᆞᆯ ᄭᅫᄉᆞ 이를 을 젼ᄒᆞ오신 신의 바

라무궁조흔지면어지흔ᄉᆞ의복리지아니된모복
원젼흔ᄀᆞᆯ흘시훌쳐소셰ᄒᆞ여ᄉᆞ하산이산
수울부시된호ᄒᆞᆫ주지친구을빈졀흔
시ᄂᆞ모두인박터보이씨화씨ᄂᆞ한ᄉᆞᆯ도ᄒᆞ아
어ᄒᆞ회무로시ᄒᆞ시니너의ᄃᆞᆯ이신졉리에조봉을
비반ᄒᆞ니가히ᄉᆞ족의형벌을쳔ᄒᆞ리ᄉᆞᆺ참
지하ᄅᆞ시ᄀᆞ련ᄎᆞ흥의뫼셜을ᄃᆞᆨ에폐뵈일
울봇드ᄒᆞ지아니ᄒᆞᆯ수샹연이내ᄒᆞᆸ을ᄃᆞ하
려고ᄅᆞ도주흘지아니ᄒᆞᆯ졔ᄎᆞᆯ가리흘에흥
의치시ᄂᆞ이주부의ᄂᆞᆫ못ᄂᆞᆫ재하쌍이려옷젼노
ᄒᆞᆫᄂᆞ조ᄒᆞᆫ글쳐ᄒᆞ가뫼호령ᄒᆞᆫ후ᄉᆞᆷ족의
형벌을가ᄌᆞ혼ᄉᆞᆯ인을각각형ᄉᆞᆯ이엇듯
석쳐시니오무인과이쇄화는이엇을누구

릴텽뻔을 못이되여 미텽을 슉여는 갈ᄋᆞ듸라셔
말ᄉᆞᆷ을 못ᄒᆞ되 놉즉 뻐ᄀᆞ히 보ᄂᆞᆫ 빌ᄉᆞᆼ이 ᄌᆞᄉᆞᆼ 갓
득ᄒᆞ여 흑ᄉᆞᆼ의 져근 졀은의 뵈ᄉᆞᆼ이 녀졍ᄒᆞᆯ 어ᄂᆡ 졍
의옥 혈이 읍ᄂᆡ ᄒᆞᆯ뢰 ᄌᆞ로 주뢰셔 놉히 ᄒᆞᆫ셤
갓치 ᄌᆞᆨ ᄒᆞᆯ뢰 ᄆᆞᆫ ᄌᆞ이 실 며 ᄒᆞ셔ᄂᆡ 신져 갓치
못ᄒᆞᆯ ᄀᆞ뢰 ᄒᆞᆯ션 쥭ᄂᆞᆫ을 찬 ᄉᆞᆼ의 효쥭 ᄒᆞ쥬
쳐ᄃᆞᆫ의 어ᄇᆞᆫ 시별 이오 가ᄉᆞᆼ의 졔ᄒᆞᆫ 이ᄉᆞᆼ에나
쎵어 비ᄒᆞᆷ 미ᄀᆞ ᄒᆞᆯ오나 쥭나ᄀᆞᆨ을 뻐ᄀᆞ로 ᄒᆞᆯ
의 츅쥭 ᄒᆞᆫ 씨ᄂᆞᆫ 지다 ᄂᆞᆫ 복의 ᄌᆞᆯ뎌 ᄀᆞᆫ여
ᄭᆞᆫ디의 미ᄲᅢᆼ을 드ᄅᆞ실 ᄌᆞ줄 ᄉᆞᆯ야 간칙ᄒᆞ
ᄒᆞᆫ 옥되ᄀᆞ 복된 쳥ᄉᆞᆼ은 쥭고보ᄒᆞᆫ 소을 놉즉
ᄂᆞᆫ ᄌᆞᆷ을 ᄂᆡ여 바이시고 의뎐 젼ᄒᆞᆫ을 괴시ᄂᆞ되ᄌᆞ
ᄲᅡᆯ으ᄉᆞᄉᆞᆯ 상이 진ᄂᆞ ᄒᆞᆫ습 용ᄇᆞᆫ을 ᄂᆞᆫᄒᆞᆯ이

시고 유슌ᄒᆞ고 온슌ᄒᆞ믈 치시니 ᄋᆞ희ᄂᆞᆫ 을 노붐ᄒᆞ여ᄂᆞᆫ
갈아ᄂᆞᆫ 되조두ᄒᆞ야 ᄒᆞᆫ네 어ᄀᆞ괴이런ᄃᆞᆺ 갈아ᄒᆞ엿ᄂᆞᆫ
여즁사ᄌᆞ쇽지 아니ᄒᆞᄂᆞᆫ과 ᄃᆡ외ᄒᆞᆯ 셔ᄋᆞ여
시의 일ᄉᆡᆼ을 쓴치시ᄆᆡ 죽어ᄂᆞᆯ 간치 아ᄂᆞᆫ
ᄅᆡ와 ᄉᆡᆼ면이 잇쳐ᄂᆞᆫ 아비ᄉᆡ 흐리ᄒᆞᆫ 녜ᄂᆞᆫ
간치 못ᄒᆞᆯ 어시 죄어ᄇᆞ 슝ᄉᆞ지 못ᄒᆞ오ᄂᆞᆫ
가상이 익노ᄒᆞᆫ 연ᄒᆞ여 ᄆᆡ이 치시고 츳ᄂᆞᆫ
ᄒᆞ시니 이욕이라 ᄒᆞ여지고 벽ᄀᆞᆯ이 ᄃᆞᆺᄒᆞ
ᄉᆡᆼ뎐을이 ᄂᆞᆸ은 ᄒᆞᆫ 셔과 ᄒᆞ시 신외ᄒᆡ ᄉᆡᆼ기리여
괴셕이 ᄋᆡᆫ ᄒᆞᆫ퇴 ᄐᆡᆨ 보ᄂᆞᆫ ᄌᆞ즁으로 ᄌᆞᄒᆞᆫ최 ᄋᆞ여
ᄒᆞ니 이현ᄌᆞ리 ᄂᆞᆯ이 최ᄀᆞ려 벽ᄌᆞᆼ을 ᄌᆞᆼᄒᆞ니 ᄊᆡ
밧지 오ᄅᆞᆯ 쓰치 죽은 ᄌᆞ과 죄 못ᄒᆞ고 그ᄅᆡ 셔ᄀᆞ
져갈ᄂᆞᆫ 되 ᄃᆡ보가ᄉᆞᆫ 간ᄋᆞᆨᄒᆞᆯ 노ᄋᆞᆯ 회ᄀᆞᆺ

되온을 말ᄉᆞ리지 못ᄒᆞᆯ리어나 엄습ᄒᆞᆫ 근을
ᄉᆡ작ᄒᆞᆫ라 ᄒᆞ시니 슬프다 츙신이 엇지 죽
기를 두려 ᄌᆞᆯ복ᄒᆞ리오 ᄒᆞᆫ갈ᄀᆞ치 ᄆᆞᆯᄉᆞᆷ ᄒᆞ오니
현뫼 츙졀을 ᄎᆞᆫ단ᄒᆞᆫ을 ᄉᆡᄌᆞᆨᄒᆞ니 누린디 창
뒤ᄂᆞᆫ 블근 뢰이니 ᄒᆞ사ᄉᆡ니 뎡우ᄒᆞ리ᄒᆞᆫ이
ᄒᆞᆫ산 셩지 ᄉᆞᆺᄒᆞᆫ에 못ᄉᆞᆯ 하리ᄂᆞᆫ 슐회 ᄒᆞ오시ᄆᆞ
져ᄉᆞᆺ ᄒᆞᆯ리라 박티 보니ᄉᆞᆷ이 가오ᄉᆞᆨ 져쳘ᄒᆞ
녜 박이 만ᄒᆞᆫ ᄌᆞᆯ복지 아니ᄒᆞ니 ᄒᆞ디타 상이 즈언
근노ᄒᆞ샤 ᄌᆞᆯ로 복쇄 불평ᄒᆞ시되 탕 상이 ᄉᆞ명
ᄒᆞᆫ ᄎᆞᆺ즉 ᄒᆞ며 복ᄒᆞ물 바드ᄒᆞᆫ라 ᄒᆞ시니 위관
이 숭명ᄒᆞ여 ᄎᆞᆺ즉 ᄒᆞᆯ디 수리 지를 너ᄒᆞᆯ 퇴부ᄒᆞ
이 ᄇᆞᆸ술 ᄂᆞᆫ아 ᄆᆞᆨ산 드ᄉᆞᆺ 술상의 울거ᄉᆞ 쇄나타
울어 지뢰이ᄅᆞᆫ 우뢰 고ᄒᆞ야 근 배ᄂᆞᆫ이 세들녁

육도즁에 혹는도 되보 셩ᄒᆞᆫ 죄를 죄ᄒᆞᆫ이 엇발
너의 갓튼 죄ᄀᆞ 지ᄂᆞᆫ 즁 녹산 히 ᄯᅢ ᄒᆞᆯ 어지ᄊᆡᆼ을
즁치 아ᄂᆞ 한데 악죄 ᄒᆞᆫ 즁ᄉᆡᆼ을 나지 시되 되던
홀일도 업슬 가치 ᄯᅥ니 ᄒᆞ이 즁ᄉᆡᆼ이로 말못 ᄒᆞᆫ지라
ᄎᆞᆷ아 어ᄇᆞᆷ을 버리고 낭을 ᄉᆞ지ᄉᆞᆫ다 나는 ᄌᆞᆨ이
도록은 지신이 되어 본향 비안의 지을 ᄅᆡ로
ᄅᆡ니와 너의 악되ᄂᆞᆫ ᄋᆞ라 쇠ᄂᆞᆫ 즁ᄉᆡᆼ의 악되ᄆᆡ
갈 고죽어도 더디온 자신이 되어 악화 조ᄒᆞᆫ ᄭᅦ
비치되라 ᄒᆞ니 ᄉᆞᆨ 지기을 ᄆᆞᆫ치 아니ᄒᆞ니 ᄇᆡᆼ한
ᄒᆞ되 되도ᄒᆞᆫ 여 원갓 형ᄉᆡᆼ을 갓효 어러되즉
자의 이로동죽ᄒᆞ니 되보 의예셩이 ᄒᆞ은ᄒᆞᆫ
졍각 의예ᄉᆞ 죄 ᄒᆞ죄 즁이 ᄂᆞᆫ ᄯᅢ ᄂᆡ 되
엽더라 이날 ᄇᆞ은 ᄉᆞᆷ아 차ᄒᆡᆼ ᄒᆞ니 발다서 ᄒᆞᆼ

실된 흉글 아시는 듯ᄒᆞ니와 되보즉 게리을
상달ᄒᆞ수 상이면 앞을 갈산을 아지ᄒᆞ니
ᄒᆞᆼ에 죽일 ᄒᆞᆼ흥ᄒᆞ여 일ᄒᆞ 졍으로 가치 ᄉᆞᆺᄒᆞ니
가ᄒᆞ니 죽이 발ᄒᆞ여 되보의 병이 젼ᄒᆞ니 술 ᄒᆞ다
죠슬로 ᄒᆞ신 엘로와 여올리ᄋᆞ쳐 ᄒᆞᆼ의로 즉
ᄒᆞ니 ᄡᅡ온나 되 보ᄉᆞᆺ 드는 ᄒᆞᆼ셔ᄋᆞᆫ 봉ᄒᆞ여 간ᄒᆞ
되ᄂᆞᆫ 빌ᄂᆞᆫ이라 어지ᄋᆞᆯ 올라지 어ᄂᆞ리오 ᄒᆞᆫ엿ᄉᆞ
탁ᄒᆞ라 번ᄒᆞ 쳥ᄒᆞ리 되 보즉 옵ᄲᅮᆯ 듯고 셜ᄒᆞ여ᄂᆞᆫ
리업더라 ᄎᆞᆷ셜만 ᄒᆞᆨᄋᆞᆨ 획 미ᄐᆡᆼ ᄒᆞ오ᄂᆞ니 바야
ᄒᆞᆯ로 본궁 ᄡᅡᆼ궁이 되보의 셰상 ᄒᆞ리ᄆᆞᆯ 알외니
회위연 ᄒᆞᆫ ᄇᆞᆯ이 ᄉᆞᆯ 한 현의 ᄒᆞ 숙 된 숙ᄀᆞ ᄃᆡ오
너일ᄂᆞᆫ 은숙ᄀᆞ여 빙ᄒᆞ와 ᄒᆞᆨ신 ᄃᆡ 년 여구ᄒᆞ ᄒᆞᄀᆞ
시더라 숑공희 이 ᄲᅡᆯ을 드ᄂᆞᆫ 글 ᄒᆡ 늘ᄒᆞ 급히 뎔

니의는 ᄃᆞ려와 샹의 죽달을 ᄒᆞ리 후의 ᄒᆞ면 어ᄅᆞᆯ 엇지ᄒᆞ리
련디비상ᄒᆞᆫ ᄒᆞ시는 말ᄉᆞᆷ이예 예러가지로 주달ᄒᆞᆫ
회상이 능치 못ᄒᆞ나 삼공쳬 ᄒᆞᆯ 엄슈채 ᄂᆞ을너와
후의 뵈은즉 가장 ᄒᆞᆫ 날이리지 못ᄒᆞ나 회ᄒᆞᆫ
시위로 발 화복이 지환이라 누을 ᄒᆞᆫ 중원으로
슈고로지 더욱 셩ᄒᆞ여 울 ᄒᆞᆫ 벌을 벗고니 셩
츙신을 가ᄒᆞ리라 되오니 오리 ᄒᆞ여 어ᄉᆞ을 예ᄉᆞ죄로 죽을
공훈이 가히 찰샹 츙신이 샹의 ᄇᆡᆨ을 밧ᄌᆞ와 비로소 뎨ᄌᆞ
노련 공을 편ᄒᆞ니 회겨옷 셔 ᄂᆞᆫ을 호ᄌᆡ외리
을 간ᄒᆞ야 츙신은 셔의 와 나래ᄯᅢ을 밧ᄌᆞ온 후의
죽ᄉᆞ 대단을 쌔나 불딧ᄒᆞᆫ 쓸고 나오셔 ᄃᆡ 이ᄯᅢ ᄌᆞ이 ᄒᆞᆫ
셰울 ᄡᅢ라 은통을 주ᄒᆞᄂᆞᆫ 지라 후의 현 쇄비직
츙요를 엇ᄆᆞ ᄒᆞ이여 져 말ᄉᆞᆷ이 방즈 ᄒᆞᆫ 회셜이 ᄀᆞᆫ
츙의 ᄀᆞ즌도 ᄃᆞᆫ 청ᄒᆞᄂᆞᆫ ᄃᆞ뢰 어ᄉᆞ 조회셔이 블

결혼지어 보지 ᄒᆞ셔다 좌우의 ᄇᆡ셔 본ᄃᆞ 궁연들
이격졀혼을 이러져 못ᄒᆞ되 또ᄒᆞᆫ 부의뢰를 당
ᄒᆞᆯ가 두려 소ᄅᆡ 울음 삼가 체 혜음을 다ᄒᆞᆫ에 ᄂᆡ라
회죄ᄒᆞᆫ 일을 ᄯᅥ나 설여 중이와 호외쇽을 뒤ᄂᆡ
ᄒᆞ려ᄂᆞᆯ 흐리산이 못ᄒᆞᆫ ᄒᆡᆺ쳐 ᄆᆡ여서 ᄎᆞᆷ도드기
치거시 업셔나 죄외 더욱 가탄ᄒᆞᆫ 어라 굽히
리실와 솔ᄅᆞ 고ᄅᆡ라 ᄒᆞ여 찬 즐의 비회 가ᄇᆡᆼ올
석미치 못ᄒᆞᆫ 헌가ᄇᆡᆼ올 우울 현ᄒᆞ 허두ᄃᆡ 창이 회
발회 정ᄋᆡ 복ᄃᆡᆼ 아리 날ᄅᆡ거 도시ᄂᆞ지 하 비도가
마을 타시고 오고 ᄂᆞᆫ을 나셔셔 흰 실에 ᄎᆡ당
ᄒᆞ여 숙울 어두울어 시어 그자 창ᄒᆞᆫ 믈 비ᄅᆞ리
ᄒᆞ지 못ᄒᆞᆯ ᄂᆡ라 션비오시 범에 이오 고ᄆᆡ 압
히 어ᄇᆞ두려 ᄉᆞᆼ을 드리고 호음ᄒᆞ여 회 나오
시믈 보고 ᄯᅥ 경ᄒᆞᆫ어 미시 회신을 신지 못ᄒᆞ

고발바 당을 다나오ᄆᆡ 일시의 방셩되고 곡
ᄒᆞ니 곡셩이 쳔지진동ᄒᆞ고 비ᄂᆞᆫ셩을 리ᄂᆞ셔
노ᄅᆞ오며 시길을 ᄲᅡ아 통곡ᄒᆞ니 산쳔초목과
금슈 다 우ᄂᆞᆫ 듯ᄒᆞ더라 ᄎᆞᄋᆡ 여러 셰 보근 곳이어니
비변ᄉᆞ 뒤 평의 안조 ᄎᆞᆺ술 벗ᄉᆡ 이 갓ᄐᆞᆫ 난션ᄌᆡᆨ
져고금의 어ᄃᆡ 잇스리오 그ᄆᆞᄋᆞᆷ의 ᄌᆞᄂᆡ 효ᄌᆞ 죽
슈을 ᄇᆞ라 가마 뒤을 ᄯᆞ라 오며 지극히 외로ᄂᆞᆫ
ᄒᆞ니 형의 ᄉᆡᆼ이 더욱 비창ᄒᆞ더라 본 졋 희이 ᄂᆞᆯ
시어 일ᄀᆞᆫ ᄭᆡ 이 황ᄋᆡ ᄒᆞ여 슬프도다 이러지 못
ᄒᆞ여 ᄯᅥᄃᆡ의 나ᄯᆡ 북지ᄒᆞ니 이ᄯᆡ ᄯᅥᄃᆡ ᄌᆞ연
이젼 ᄎᆡᄡᅥ니 ᄒᆞᆫ기라 희가 마의 ᄂᆞ라ᄉᆞ 바로 영라
평의 드러가 방셩통곡ᄒᆞ시니 극진ᄒᆞᆫ 졍의 쳘쳔
ᄒᆞ여 ᄌᆞ소의 손ᄌᆞ 회여 ᄂᆞᆫ 듯ᄂᆞᆫ지 눈믈을 ᄂᆡ 흘니

리여ᄂᆞ니라 ᄯᅥᄂᆞᆫ 죵ᄂᆞᆫ을 다 ᄎᆞᆺ ᄂᆞᆫ죡 갈 ᄲᅡᆯ리
최셩을 ᄲᅡ아 외인을 통치 못ᄒᆞᆯ 죠ᄎᆡᆨ슈라
도본 죵의ᄎᆡ ᄒᆞ며 드릐대 ᄒᆞᆫ니 고ᄒᆞᆫ ᄒᆞᆯ 져쟝
ᄒᆞ고 물이 ᄒᆞ리 ᄒᆞᆨ지 못ᄒᆞᆯ ᄯᅥ라 쳬 월ᄂᆡ에 돌ᄀᆞ ᄒᆞᆫ
여 구ᄒᆞᆫ 친ᄒᆞᆯ ᄯᅢ에 션 본이 ᄌᆞ리니 정ᄒᆞᆫ을 ᄒᆞᆫ항 ᄒᆞᆫᄌᆞ
고 무ᄉᆞᆯ 딕은 어ᄀᆞ 죵에 ᄉᆞᆯ 즉기디 ᄒᆞᆫ라 ᄒᆞᆫ되 운든
ᄒᆞᆫ울을 ᄆᆞ울어 쳘이 ᄒᆞᆫᄒᆞᆫ족 ᄭᅳ르ᄒᆞᆫ으로 술레
아니시ᄅᆞ ᄯᅢ순이 죠고ᄯᅥᆫ 굿시ᄅᆞ 알ᄯᅵ이 조회 ᄒᆞᆫ셜을
벌외 못ᄒᆞ시더라 휘이롯 본 ᄑᆞ우라ᄒᆡ 이르되
셕ᄇᆞ울 ᄂᆡ양 ᄒᆞ기여 래웃어 슈라 울 보ᄂᆞᆫ 그외셔
ᄒᆞ기어 재웃ᄂᆞ니 졍ᄒᆞᆫ ᄒᆞᆫ울 ᄒᆞᆫ라 ᄒᆞᆫᄃᆡ 리이
덴 구러 ᄒᆞᆫ 쳐ᄅᆞ 외ᄂᆞᆫ이 다ᄅᆞ더니 본가 외셔 손이
울 ᄲᅡ어 ᄉᆞᄅᆞ 태ᄌᆞ거ᄂᆞᆯ 회 본시ᄅᆞ 벌ᄅᆞᄃᆞ 술ᄒᆞ되

혼궁을 나리시니 재ᄉᆞ시ᄂᆞᆫ 조와 ᄀᆞᆯᄋᆞᄃᆡ 오ᄂᆞᆯ
나ᄂᆞᆫ 이 이러 드ᄉᆞ고 ᄒᆞ신 후의 드리신 ᄒᆞᆫ 오이어
소세 ᄒᆞ여 ᄒᆞ시시 올리니 오ᄂᆞᆯ 이러ᄃᆞᆺ 설ᄒᆞ온 ᄒᆞᆫ
이 ᄒᆞ시니 여쳔연고로 이시가 ᄒᆞ더니 휘ᄒᆞᆫ 의회
념 ᄒᆞ와ᄂᆞᆫ 비아 ᄒᆞ리 ᄭᅴᆨ 덕ᄋᆞᆺ 어셔 회ᄒᆞ시니 ᄭᅩᆺ
어치시ᄂᆞᆫ 올리ᄂᆞᆫ ᄒᆞᆫ 리오ᄂᆞᆫ 듯 ᄒᆞ이ᄋᆞᆯ 어ᄉᆞᆸ
복이 되쳔의 ᄌᆡ 술ᄭᅦ ᄒᆞ시ᄂᆞᆫ 더시라 ᄒᆞᄂᆞᆫ 일옷
년의 가서 ᄒᆞ여 ᄒᆞ라 설ᄒᆞᆫ 한의 진ᄒᆞᆫ 듯ᄒᆞ니 어ᄒᆞᆫ
눈이 옹ᄂᆞ굴 뵈ᄋᆞ시니 한ᄀᆞᆺ ᄃᆡ셔 ᄌᆞ아와 니을하
터ᄒᆞᆫ 나 뫼옵지 못ᄒᆞ야 ᄒᆞᆫ다 하리 만ᄒᆞᆫ 되셧 ᄒᆞ온
년을 ᄉᆞ쳐 지비 을ᄂᆞᆫ 것 되셔 ᄎᆡ 복을 ᄒᆞ여 ᄂᆞᆫᄒᆞᆺ
듸여 회ᄒᆞᆫ지 아니셔ᄂᆞᆫ 완칙 여어 수ᄒᆞ의 외얼
회복을 이엳 으리오 ᄒᆞ셔ᄂᆞᆫ 시셰올 다니시 어ᄂᆞᆯ

희연ᄒᆞ더라 뎐언은 을나 ᄯᅩ 분부ᄒᆞ야 ᄲᆡ리
화병을 바다 와이ᄋᆞᆯ ᄌᆞᆼ치 못ᄒᆞᆯ 조셕ᄉᆞ라
도본 중외셔 ᄎᆞᄎᆞ 드리대 ᄒᆞ여 고혹ᄒᆞ ᄒᆞᆯ ᄎᆡ랑
ᄒᆞ고 ᄂᆞᆯ이 ᄒᆞ로 지 못ᄒᆞᆯ너라 셰월이 여류ᄒᆞ
여 그ᄒᆡ 진ᄒᆞᆯ ᄆᆡᆼ션 부인이 쟝이 온 향 창ᄒᆞᆫ
고 ᄆᆞᆷᄃᆡ온 녀ᄌᆞ ᄒᆞᆫ에 ᄂᆞ려 오ᄃᆡ ᄒᆞ되 ᄃᆡ오ᄂᆞᆫ
ᄂᆞᄂᆞᆫ 울 드ᄅᆞ어 ᄯᅥᆯ어 ᄒᆞ되 혹 엇ᄌᆞ 드ᄅᆞᆫ 소ᄅᆡ
아시ᄂᆞᆫ ᄯᅢ ᄂᆞᆫ이 ᄋᆞᆼ고ᄃᆡ ᄒᆞ시ᄂᆞᆫ 안치 이로ᄃᆡ ᄒᆞᆫ 소ᄅᆞᆯ
뗠 뵈 못ᄒᆞ시더라 흐이ᄅᆞᄂᆞᆫ 죠ᄒᆞᆫ 비ᄅᆞᆯ 이ᄅᆞᄃᆡ
셕 밧을 내 ᄋᆞᆼ ᄒᆞ이 에 ᄯᅢ 오 ᄉᆞ ᄒᆞ라 울 ᄇᆞᆫ ᄀᆞ리 외셔
ᄒᆞ이 여 ᄯᅢ ᄒᆞ니 져 쳔 ᄒᆞ롯 ᄒᆞᆯ 가 ᄒᆞ더라 이
ᄃᆡᆫ ᄀᆞ히 ᄒᆞᆨ치ᄅᆞᆯ 외ᄂᆞᆫ 이 ᄃᆞᆫᄂᆞ ᄃᆡ 보ᄒᆞ 외셔 ᄉᆞᆫ어
울 ᄇᆞᆼ이 ᄉᆞᄅᆞᆷᄭᅵ리 ᄂᆞᆯ 뵈 보시 ᄇᆞᆯ 드 ᄉᆞᆯ 되

옥골을 나려시니 좌우시ᄉᆞ 즈와 골ᄋᆞ되 오울
낭ᄌᆞ이 이러ᄃᆞᆺ 고ᄒᆞ신 후의 로리신 후 ᄒᆞ여
ᄉᆞ배 ᄒᆞᆨ혹 ᄒᆞ시시 웅ᄒᆞ니 오ᄅᆞᆯ 이러ᄃᆞᆺ 설ᄒᆞᆫ
어ᄒᆞ시니 어쥬 연고 ᄒᆞᆯ이ᄉᆞ가 ᄒᆞᆫ디 쥐ᄒᆞᆫ 이회
별ᄒᆞᆫ 일을 비ᄒᆞ여 ᄒᆞ외 엿ᄃᆡᄀᆞᆺ 나서 ᄒᆞᆫ 켜ᄒᆞ고
어지시는을 듯ᄒᆞᆫ 외로오ᄂᆞᆫ 듯 ᄒᆞ이 을 에ᄉᆞᆷ
복ᄒᆞ여 뎍쳔의 ᄃᆡ출 거ᄒᆞ시는 다시 하ᄌᆞᄂᆞᆫ 알ᄭᅩᆺ
년ᄒᆞ비 가ᄉᆞ ᄒᆞ여라 설ᄀᆞᆼ의 진ᄒᆞᆺᄂᆞᆫ 어이
불이 ᄂᆞᆫ ᄂᆞᆯ을 젹ᄒᆞ시니 화ᄒᆞ시여 ᄌᆞ아 우울ᄒᆞ
터ᄒᆞ 존ᄉᆞ외 오ᄅᆞᆯ지 못ᄒᆞᆯ이다 ᄃᆡ안ᄃᆡ 너ᄉᆞᆼ ᄒᆞᆫ다
년올 ᄯᅡ쥐 ᄌᆡ뵈 업ᄂᆞᆫ 것 ᄃᆡ계 ᄎᆡ복을 ᄒᆞ여 ᄂᆞᆫ엇
듯ᄒᆡ여 ᄒᆞᆼᄒᆞᆫ지 아니서ᄂᆞᆫ 왈 ᄌᆡ어이 어ᄌᆞᄂᆞᆫ의 외얼
친복을 입으외 보ᄒᆞ셰ᄂᆞᆫ 시ᄉᆡ올 다니ᄂᆞ 어얼

츅셔는 상회슌ᄭᆡ지 ᄃᆞ되 여ᄉᆞᆺ 뎡치 사을이라
시니 챤돈와 ᄃᆞ베물 ᄒᆞᆫ돈식 ᄒᆞᆫ 시간의 ᄎᆞᆷ화
이 가득 ᄒᆞᆯ리 ᄲᅡᆫ 흔히 ᄡᆡᆨ지 아니ᄒᆞ여셔는 인ᄎᆡᆨ을 거ᄒᆞᆼ
업으온 온치번갓 드나 지본 큰 슈ᄒᆞᆺ은 귀고 ᄒᆞᄂᆞ니 ᄒᆞᆫ
슈변ᄂᆞᄋᆞ을 ᄒᆞ가 볼게 ᄒᆞᆫ에셔나 ᄉᆞ이 ᄲᆡᄂᆡ ᄒᆞᆯᄉᆞ 혼
이날 곳 ᄭᅦ나 ᄒᆞᆯ변 슈화ᄋᆞ을 ᄒᆞᆫᄃᆡ 처ᄉᆞᆺ ᄒᆞᆫ헤 ᄂᆞ 드
ᄒᆞᆯ리ᄂᆞ 일을은 큰리가 아오되 ᄒᆡᄂᆞᆫ 쥴ᄂᆞᆯ헤
게 ᄃᆞ리ᄋᆞ니 ᄇᆞᆨ기여 츅ᄒᆞᆫ치라 ᄒᆞᄆᆞᆫ 드ᄅᆞᆯ이 너여 샹ᄒᆞᆯ
ᄯᅩ치너 드ᄅᆞᄂᆞ 드리ᄂᆞ리 ᄂᆞᆯ이 ᄯᅦ다시 ᄉᆞ오 ᄒᆞᆫ을 ᄉᆞᆺ
ᄒᆞᆫ너나 ᄀᆞᆼ즁이 ᄃᆞ선 ᄂᆞ혼 흐러ᄂᆞᆫ 휘 ᄃᆞᆯᄉᆡ 되
ᄂᆞᆫ날 ᄀᆞᆯ구어 ᄒᆞᆯᄂᆞ 앗지 ᄲᅡᆯ고 ᄉᆞᆯ근 이ᄋᆞᆯ면 ᄒᆡᄉᆡ
라 ᄒᆞᆫ셔치고 ᄃᆡ올 ᄲᅡᆯ때 주ᄂᆞᆫ 본즁 그리가 다이
식기 ᄯᅦ ᄒᆞᆯ나ᄋᆞ 기 잔으고 모치ᄂᆞᆯ이 이로 ᄒᆞᄒᆡ
는 날에 ᄯᅧᄋᆞᆯ어도 이미 ᄲᅡᆼᄯᅥᆼ의과 ᄎᆞᆨ이 ᄒᆞ되

어더나 무지ᄒᆞᆫ 리지ᄆᆡ 셔ᄉᆞᆼ조의ᄆᆡ 시련ᄃᆞᆺ ᄒᆞᆯ
ᄒᆞ려ᄂᆞᆯ 고신 ᄒᆞᆫ울 일오라 ᄒᆞᆫ죄 옵시ᄆᆡ ᄒᆞ여
추ᄂᆞᆫ 국션 니 ᄒᆞ 죵이 간치이 ᄒᆞ여 ᄃᆞ려 ᄒᆞᆫ
ᄒᆡ 추인ᄉᆞ로 옷 ᄒᆞ여라 ᄒᆞᆫ치 보ᄂᆞᆫ ᄒᆞᆫ 심을 ᄒᆞ회
인 ᄒᆞᆫ여 보라 바ᄂᆞᆫ 리ᄂᆞᆫ을 다려 다가 ᄒᆞᆫ ᄒᆞᆷ ᄂᆞᆫ 쳥ᄒᆞ
과의 ᄃᆞᆼ사 쳔을을 가라 치시 ᄇᆡ 셰월을 ᄇᆞᆺ 예ᄉᆞᆫ
녀시 려 ᄒᆞᆫ 잇셔 간 ᄃᆞᆯ이 ᄒᆞᆨ을 쳔 ᄇᆡᆨ가 열ᄒᆞᆫ
지로 네 방 ᄒᆞᆫ여 아ᄂᆞ라 별 ᄌᆞ ᄒᆞᆫ ᄌᆞᆼ이 ᄉᆞᆺ지 어이
게 ᄒᆞᆫ의 쳔 생이 ᄊᆡᆨ 차여 ᄃᆞᆺ지 어서 ᄒᆞᆫ라 오ᄂᆞᆯ ᄒᆞᆫ
쳔ᄅᆞ이 호 ᄐᆡᆼ 근ᄋᆡ 고친 가이 반보 ᄒᆞᆷ 인 비 ᄉᆞ ᄒᆞᆫ
린라 쳔생이 쳐ᄀᆡ 치ᄉᆞ 흐의 ᄀᆡ 괴 ᄒᆞ오를 논ᄊᆞᆺ
살로 죄ᄉᆞ 외 간 ᄒᆞᆫ 이ᄅᆞᆯ 추회 ᄒᆞᆫ 갈을 외에
번ᄒᆞᆫ ᄉᆞ 쳘 ᄆᆞᆨ 보을 일ᄋᆡ 너여 갈ᄉᆞᆼ 이라 우ᄂᆞᆯ
주어ᄂᆞᆫ ᄉᆡᆼ이 ᄯᅥᆼᄒᆞᆷ을 시라ᄒᆞ ᄀᆞᆺ 가ᄉᆡᆼᄒᆡᆨ ᄂᆞ라

을라 므을치시는 예시신 훈 울을 다 믈너 갓 화라
셰손의 회 호구을의 비방긔을 나리오시 저광
훈슉을 배울 근 울고 울너셔 훈셔는 즉일의 훈 ᄒᆞ
어찬을 울ᄉᆞ시서 회혜ᄒᆞᆫ 울 빈셰 훈셔는 ᄒᆞᆫ
흘외을 울ᄇᆞᆺ고 빈우셔의 길히 훗 ᄒᆞᆫ
훈서을 니모ᄎᆔ 훈셔ᄂᆞᆫ 슈연이 젼ᄌᆞᆨ 훈산 ᄂᆞ
제다 회남ᄋᆞ외 간음 훈슈 셔체로 소리훈 헤
시니 산이 훈을과을고 ᄇᆡᆼ형을 슉티ᄂᆞᆫ 싱을
타훈셔는 즉일의 ᄇᆡ삼과 을나 ᄒᆡᆼ효ᄒᆞ 되
슉원ᄀᆞ 흔몸을 조로 베ᄅᆞ시는 ᄎᆞ정복한 ᄒᆞᆫ시
울고 둘 스쎄 훈셔는 상인 흔볏 헤을에 따 다이
각뇌훈와 훈셔 조손와 내시을 번훈 스볼 주 ᄒᆞ여
은울다 여흔 ᄐᆡᆼ상 ᄉᆞᆸ이 엄네 흔ᄒᆞᆫ 디

시어 휘슌 왕왈 너 오회 재지에 이엇스니 닐을
려슌탄을 인혀 뵈지 못ᄒᆞ리라 ᄒᆞ시더라 상이 어
찰노써 ᄒᆞ올 즁ᄒᆞ 외로 ᄒᆞ시 드듸여 봉쇄ᄒᆞᆫ
몸을 엇ᄂᆞᆫ 공사ᄂᆞᆫ 올에 와 ᄭᆞ치 ᄒᆞ을노 ᄃᆞ릐니 회
벗ᄂᆞᆫ 안ᄒᆞ여 어리면 ᄉᆞ인 왈 죄인이 어ᄃᆡ치 ᄒᆞᆫ산ᄒᆞᆫ
반ᄂᆞᆫ ᄒᆞ리오 ᄒᆞ시ᄂᆞᆫ 불니 치시니 ᄒᆞ시ᄂᆞᆫ 환ᄒᆞ여 ᄒᆞ슌
지 못ᄒᆞ여 뎌 젼의 산 탈ᄒᆞ니 상이 라ᄆᆞ 어을 ᄉᆞ
다 이ᄯᆡ 이샹ᄂᆞᆫ 슌회ᄒᆞ리ᄆᆞ ᄒᆞ신ᄂᆞᆫ 국쳬 ᄂᆞ리 죄 어ᄒᆞ
발 위ᄉᆞ이 회 시러ᄂᆞᆫ ᄀᆞ 슌치ᄇᆞ지 못ᄒᆞᄀᆞ 산을 ᄒᆞ
도ᄉᆞ이 뎍ᄭᆞ 을ᄂᆞᆫ 즁ᄒᆞ여 이도ᄌᆞ의 번화ᄒᆞᄂᆞᆫ
관옥외 지ᄒᆞ의ᄂᆞᆫ 환산이 엘ᄂᆞᆫ ᄒᆞ엿라 ᄂᆞ쾨온 ᄯᆞ
겨슐 갓ᄒᆞ야 ᄎᆞ례로 ᄌᆞᄒᆞ시와 ᄃᆞ셔로 ᄊᆞᄀᆞ의을
울휘 ᄯᆞᄃᆞ릐니 휘ᄯᆞ치 ᄆᆞᄒᆞᄉᆞ ᄊᆞᄉᆞ 우시ᄂᆞᆫ 맘을

됴ᄋᆡ의 ᄉᆞᆷ샹이 졔쳔 진리를 ᄆᆞᆺ도리 ᄌᆞᆼᄒᆞᆷ
와이로리 받ᄋᆞ시기를 ᄎᆡᆫ ᄒᆞᆫ뎨 회별 ᄒᆞᆫ 보ᄀᆞ져니
샹ᄋᆞᆼ에 계 ᄒᆞᆫ외셔 ᄀᆞ고독회의 ᄒᆞᆫ 우리 ᄒᆡᆼ은
티 회옥ᄀᆞ을에 ᄒᆞ 회 ᄒᆞ셔을 ᄅᆡ ᄋᆞᆫ 술로ᄀᆞ을에
러지ᄂᆞᆫ ᄒᆞᆫ온 우리 회 죠ᄒᆞᆫ 옥ᄂᆞᆫ을 나회서이 회회
편진 칠ᄒᆞᆫ 쇄옥이 반지의 가득ᄒᆞᆫ 손에 다 쳔
일을 녹ᄋᆞᆺ화 술이 ᄒᆞᄉᆞᆫ 쌀ᄂᆞᆫ니 디디로 구셩을
누ᄋᆡ에 베럿ᄂᆞᆫ지라 회복기를 ᄊᆞᆺ회시ᄂᆞᆫ 무엔ᄃᆡ란
라 ᄒᆞ셔이 샹ᄋᆞᆼ이 어ᄉᆡ 오티 휘 텽보의 계 쳔곳
ᄒᆞᆫ 보리 나ᄋᆡ의 다 ᄇᆡ셩을 쳥ᄒᆞᆯ ᄂᆞ이다 회ᄎᆡᆼ
옥ᄋᆡᆼ ᄀᆞ의 한 ᄭᆞᆯ 너ᄂᆞᆫ 도ᄅᆞ 가다 죄 죄목에 ᄋᆞᆯ외기
불한 ᄒᆞᆫ에 ᄀᆞᆺ ᄒᆞᆫ ᄒᆞᆯ을 ᄋᆞᆯ외라 샹궁이 도에
ᄀᆞ오리 바이을 ᄂᆞ의 친렬 불 ᄆᆞᆺ 조와 ᄀᆞ자 ᄌᆞᆺ 셰 변
죄을 이신을 가 ᄒᆞᆫ에 과 불한 쳥 브 낭ᄋᆞ 본 시ᄐᆞ

소회ᄒᆞ지 ᄉᆞᆺᄒᆞ셔 ᄃᆞ이르를 당ᄒᆞ시믈 보니
심은 ᄲᅡ지 아니ᄒᆞ나 무ᄌᆞ이 괴을 ᄒᆡᆼᄒᆞᆫ 재라
맛ᄎᆞᆷ이 은화 ᄒᆞᆫ 곤궐 젼ᄒᆞ고 ᄒᆞ셔 ᄒᆞ새 상히 더욱
늬엿쥐ᄉᆞ연 ᄒᆞ여 ᄉᆞ쇠을 ᄊᆡ쉬 위ᄒᆞ고 ᄒᆞᆯ 셰ᄂᆞᆫ 관ᄉᆞᆼ
감을고 길을 ᄒᆞ올 ᄒᆡᆼ ᄒᆞ와 ᄒᆞ새 ᄒᆞᆫ ᄒᆡᆼ 라ᄂᆞᆫ 이스
뫼ᄋᆞ셔 ᄎᆞ지ᄒᆞ여ᄂᆞᆫ 인ᄋᆞ셔 보을 죽ᄋᆞᆯ ᄒᆞ니 ᄌᆞᆼᄂᆞᆫ 만ᄒᆡᆼ
과ᄋᆞᆯ고 ᄒᆞᆯ 여 ᄀᆞᆫ이 업 쇠ᄒᆞᆯ ᄒᆞ셔 ᄃᆞᆫ ᄒᆞᆺ고 ᄒᆞ여 괴ᄒᆡᆫᄃᆞᆫ
뇨ᄒᆡ회된 견ᄋᆞᆯ 전인이 ᄒᆡᆫ은 이상국ᄒᆞᆫ 데 ᄒᆞ올
복이로 ᄡᅡ화ᄂᆞᆫ ᄲᅡᆺ기여 날이ᄋᆞ지 면ᄋᆞᆺ ᄋᆞᆯ도 ᄒᆡᆫᄉᆞ을
뫼보리ᄂᆞᆺ ᄒᆞ셔ᄂᆞᆫ 보시셔에 복을 ᄲᅡᆺ지 아니 ᄡᅥᄯᅢ
ᄒᆞᆯ셔와 ᄎᆞ지ᄉᆞᆼᄋᆞᆯ ᄉᆞ회을 당ᄒᆞ회와 ᄒᆞ셔이 ᄌᆞᆼ
ᄉᆞ단ᄉᆞᆼᄋᆞᆯ이 환공ᄒᆞ여 이ᄉᆞ연을 복지 ᄒᆞᆯ희 회실
어ᄃᆞᆫ이업지 아니실 ᄉᆞᆨ음ᄒᆞ여 예복을 이ᄉᆞᆼ신시각이라
ᄒᆞᆫ 슈ᄒᆞ고 ᄉᆞ과 ᄧᅡᆼ단이 나 ᄆᆡᆯᄒᆞ여 ᄌᆡᆨ ᄒᆞᆺ에 면ᄃᆞᄒᆞ

ᄂᆞᆫ 시의 듕강 듕서와 각쳔 ᄲᅢᆯ가ᄋᆡ 좌우의 ᄯᅢ거ᄉᆞᆫ
니 관쇠회 황ᄒᆞᆫ 일외은 화ᄒᆞᆫ디 ᄎᆡᆯᄒᆞ여 여허
ᄂᆞ무 상쇠와 리오ᄋᆡ 어리셔 ᄂᆞ려 어리와 황국 퀴덩
을 ᄃᆞ리니 희 나ᄅᆞ샤 ᄒᆞ신 국 가산을 도리라 ᄒᆞ셔
니ᄃᆞᆯ 쳔궁 북궁을 ᄃᆞᆯ리니 희ᄂᆞᆫ 믈을 ᄉᆡᆨ리셔
ᄂᆞᆫ 본 젼복인 니믈 쳔ᄒᆞᆫ ᄯᅢ 쳔은 이 방국ᄒᆞ고
이ᄒᆞ실 실ᄒᆞ이 이ᄲᅧᆯ 블슐에 ᄒᆞ시니 블은 본연
이 누ᄇᆞᆯ을 ᄉᆡᆨ래이 별ᄒᆞ니 희 믐은 블의 ᄎᆡᆨ
고의 ᄃᆞ시ᄋᆡ 그외ᄃᆞ리 ᄃᆞᆯ외 더ᄇᆞᆫ ᄒᆞ고 둣 ᄂᆞᆫ 쳥널 줄
ᄉᆞ려 챵ᄒᆞᆯ 어리ᄀᆞᆫ 쳔 어ᄋᆞ니 ᄂᆞᆫ의 ᄒᆞᆫᄃᆞᆺ
ᄂᆞ 각식 유외 쳔ᄒᆞ의 번ᄯᅢᄒᆞ니 장ᄒᆞᆫ 벽ᄀᆞᆯᄒᆞ
리 남노 ᄉᆞ울 시ᄂᆞ 약ᄒᆞᆫᄃᆡ 것 보노이 길
이 베엿ᄂᆞᆫ 쌋조ᄒᆞ의 ᄒᆞᆫᄃᆡ ᄉᆞᆫ리쏘가 ᄇᆞᆺ연 드ᄅᆞᆯ

은여가 외외막을 무셔운 것보니 일변 깃버
ᄒᆞᆯ 일변 쳘졀이 눈물을 금치 못ᄒᆞ더라
이ᄯᅢ 상이 흑원의 무릅을 ᄒᆞ고 꾸라 보시는 위회
와 상셔의 조졀 권을은 이을 볼셔 현셩이
뜻 돈 별 곳 이의 다 션편니 괴를 나을 오드
르는 차이 상 앙보희 욕궁을 늣도오나 상ᄒᆞ는
니울 ᄉᆡᆼ흑오처 강ᄒᆞ이 뵈셔다 ᄒᆞ시나 궁에 쳔고
을 든ᄒᆞ리 앞쇤 획 샹오쇄리에 이어지현
앙옳우러 ᄇᆡ호리오 ᄒᆞ세는 뎐 맛그리니 치아니
상이 쳔ᄒᆞ야 엿 ᄌᆞᆨ ᄃᆡ니을 괴ᄂᆞ세는 죄선 못될
마ᄂᆞᄎᆞ을 ᄋᆞ셔세 ᄒᆞᆯ에 쎄셔 획ᄉᆡᆼ은 ᄉᆡᆼ을 상국
순어다와 어되어 쳥과 ᄒᆞ시되 상이 ᄒᆞ여

로은의ᄂᆞᆫ 뎐의오로소셔 ᄒᆞ시니 블근긔여보ᄉᆞ드
러뎌 샹의 오ᄅᆞ신뒤 강이 빵쑥 위오자 ᄆᆞᆺ ᄒᆞ신
뎐ᄯᆞᆯ의 여ᄉᆞ쇄 뎐ᄉᆞ울 ᄇᆞᆨ기시ᄂᆞᆫ 눈믈이 옷숍
을 적셔 샹이 ᄯᅩ 한 셔ᄂᆞᆯ 심쑥 ᄒᆞ샤 강ᄉᆞ황
ᄒᆞ오ᄉᆞᆯ ᄭᅥ리지 ᄆᆞᆺ ᄒᆞ셔 ᄒᆞ 이러쇄ᄂᆞᆫ 연이 절쇄하
이ᄂᆞᆫ의 쟝쌩 ᄒᆞ여 여ᄅᆞᆫ 의게 지ᄂᆞᆫ ᄂᆞᆫ 일이 만 허하드
러라 ᄌᆞ리ᄂᆞᆫ 뵈 ᄒᆞ니 회ᄀᆞ 쟝셩 ᄒᆞᆫ ᄒᆞᆯ ᄆᆡ셔 안ᄂᆞᆯ
유라면 쳔ᄅᆞᆯ 며 ᄒᆞ더라 시ᄂᆞᆫ 뎐이ᄅᆞᆯ 늬 옷
쳐 ᄒᆞ신 ᄂᆞᆫ 뫼ᄅᆞᆯ ᄒᆞᆫ 쌋 ᄒᆞ여 관ᄎᆞ ᄒᆞ셔 ᄒᆡ러옥
불가나 ᄒᆞ시더라 화 셜은 희 비쟝쐬 오ᄅᆞ신 외
의외리 ᄆᆞᆺ 밧ᄂᆞᆫ ᄃᆞ ᄒᆞ여 믈 드르 ᄒᆞᆫ뎐 도뎐오
신단 ᄯᆞᆯ 고ᄂᆞᆫ 바른 ᄒᆞᄂᆞᆯ의 벽 란이 미 ᄆᆞ온 울
바 아ᄂᆞᆫ 뭇 리 뎡 뎐로 ᄒᆞ여 미결 뎐 ᄒᆞᆫ나 외 기ᄯᅳ의셔

셰ᄌᆞ도롯 ᄉᆞ로 병오와 ᄂᆞᆯ이와 지ᄋᆞᆺ ᄒᆞ여시셰로
ᄒᆞ여ᄌᆞᆫ 뎐에 와ᄒᆞᆯ 너오 ᄒᆡᄅᆡ ᄒᆞ니 의어 거ᄂᆞᆯ 계ᄇᆡ산
ᄊᆡ 어치ᄋᆞᆯ 안치 안 는보 ᄲᆞᆯ 나 조 현 ᄒᆞ라 ᄒᆞ여
희옷도ᄅᆞᆯ 쳬 ᄒᆞ셔니 ᄉᆞ외 ᄒᆞᆫ 편 ᄒᆞ야 ᄎᆞᆺ다 여담
엄ᄒᆡ 어셔 는지라 샹이 ᄒᆞᆨ의치 뎐의 도로셔ᄂᆞᆫ
ᄒᆞᆨ와 가 ᄊᆞ울 쏠 ᄌᆞ시ᄆᆡ 쳔이ᄅᆞᆫ이 뎡ᄋᆞᆼ ᄒᆞᆫ 모ᄅᆞᆯ
셰 나ᄂᆞᆯ시ᄂᆞᆫ 더ᄋᆞᆨ과 ᄊᆡ울 ᄅᆞᆷ ᄉᆞᆨ히 ᄯᆡ기ᄂᆞᆫ 죽어 쳔
지ᄋᆞᆯ 나ᄯᆡ 빈 ᄒᆞᆫ ᄋᆞᆯ ᄐᆞ서 ᄉᆡᆨ외 ᄒᆞ신 ᄌᆞᆼ쇄 호회
빈ᄋᆞᆯ ᄃᆞ회시ᄂᆞᆫ 여ᄇᆡᆫ ᄉᆡᆨ원 ᄌᆞ라 보ᄋᆞᆫ ᄂᆞᆯ 병 ᄒᆞᆫ
시ᄂᆞᆫ 다시 ᄉᆡᆨ 관작을 ᄒᆞ시며 회빈ᄋᆡ 복ᄇᆡ ᄋᆞ온
이왕 ᄂᆞᆨᄉᆞᆫ 보ᄀᆞ 원ᄌᆞᄋᆞᆯ ᄒᆞᆫ ᄒᆞ여 관작을 기록
다 ᄒᆞ시ᄂᆞᆫ 회ᄲᆡᆫ의 옥쳑을 어셔 ᄒᆞ라 ᄒᆞ셰ᄂᆞᆫ 쟝회
ᄌᆞᆼ을 쳬 ᄌᆞᆨ 쳬ᄅᆞᆯ 도외 부의 안치ᄒᆞᆫ 바 서로 쳔

고ᄒᆞᆫ 장ᄉᆡ을 탕ᄌᆞᄅᆞᆯ 나라로ᄒᆞ야 ᄒᆞ시니 쳔ᄉᆞ을
ᄉᆞ리 ᄒᆞ지마라 졔어ᄇᆡᆼ을 ᄲᅡᄒᆞ와 회ᄇᆞᆫ의 쇠ᄀᆞᆯ을
ᄉᆞ리ᄒᆞ여 죽ᄉᆞ얏ᄂᆞᆫ 외라 ᄉᆞ라ᄒᆞ니 ᄇᆞᆺ토이 쇠ᄂᆞᆫ
울ᄲᅡᆨ이치옵ᄉᆞ여 ᄒᆞ여 장쇠 되로 ᄒᆞ여 고쳥되ᄆᆡ
발니오ᄒᆡ여 ᄡᅡᆫ 씨ᄂᆞᆫ의 ᄇᆞᆨ게로 ᄯᅩ한 쇠쳥ᄋᆞᆺ리ᄂᆞᆫ니
의ᄉᆞ리 어지우 ᄲᅡᆨᄒᆞᆫ리오니 그ᄯᅢ에 ᄲᅡᆯᄉᆞ시의 쳘을
밧ᄃᆞ야 무ᄅᆞ니 나라히 그리치 아니ᄒᆞ면 더 쳔의 나리
지 아니리라 ᄒᆞ여 악인이 ᄉᆞᄅᆞᆷ을 치라 독ᄋᆞᆯ을
이리지 못ᄒᆞ여 세ᄉᆞᆼ을 추ᄒᆞ야 무ᄎᆞᆷ이 되여 술 ᄆᆞ라
북쳔 ᄒᆞᆫ 몸이 ᄒᆞᆯ의 ᄇᆞᆫ ᄉᆡᆼᄒᆞ여 장쇠 되야 ᄉᆞᆯ면
치못ᄒᆞᆯ 그ᄯᅢᆫ 한 몸 ᄒᆞᄆᆡ 어드리오ᄒᆞ올 ᄒᆞᆫ여
노ᄒᆞ여 ᄉᆞ시ᄆᆞᆯ 모르고 밧ᄂᆞᆫ 한 ᄲᅧᆯ과 가ᄋᆞ야 ᄒᆞᆫ ᄲᅡᆯ라

무궁ᄒᆞ신 은혜 후ᄒᆞ신 산의셔ᄂᆞ니 샹은으로
신은 쳔ᄒᆡ로ᄂᆞᆫ 호련을 벽여 가치 ᄒᆞ셔
동내ᄃᆞᆯ이 환ᄒᆞᆫ ᄒᆞ여 대하 드러 장새 올흐러
업고 초텰을 가나와 다시 엉일을 퇴ᄒᆞ야 ᄆᆡ
외울 갓초아 미ᄉᆞ을 쳥ᄒᆞ여 곤뇌의 나가
샹이 휘세번 ᄉᆞ옹ᄒᆞ시라가 ᄲᅡ지옷ᄒᆞᆫ 쟝쵹
을 갓초세ᄂᆞᆫ 남년ᄒᆞ여 곤뇌을 받ᄌᆞ온 후
다시 쳔외로 나셔 샹긔 오ᄅᆞᆫ ᄒᆞ셔 광ᄎᆡ 찬난ᄒᆞ여
쳔의셔 번승ᄒᆞ시더라 샹이 회신이 가득ᄒᆞᆫ
벽ᄉᆞ드러 ᄒᆞᆫ가지로 쳔샹의 올나와 비빈과
궁녀의 조회을 ᄇᆞᆺᄌᆞ옵시니 화홍이 츙연ᄒᆞ을
쳔도 즁샹ᄂᆞᆫ 녀북누울 드ᄅᆞᆯ 비이라 샹이

뎐즁뎐복의 ᄒᆞ셔ᄂᆞᆯ 방포ᄒᆞ셔 일즉 셔민이
뉘 아니 엇복ᄒᆞ리오 회ᄌᆞ여 ᄂᆞᆯ 슌연을 비셜ᄒᆞᆯ
슈공ᄒᆞ믈 울힝ᄒᆞ여 조ᄎᆞᆯ 지ᄂᆞᆫ 셰ᄌᆞ을 이셔ᄂᆞᆫ 뒤을
울ᄌᆞ혹 ᄒᆞ셔야 ᄒᆞᄂᆞᆯ이 ᄃᆞᆼ이 윤을 도우엇ᄂᆞᆫ
지라 회 세복 복실 잔ᄂᆞᆫ 을 ᄌᆞᆨᄌᆞ아 오ᄂᆞᆯ 다시
골회의 옥을 나ᄂᆞᆯ리시니 어ᄉᆞ 지쳔의 아니 되오지 을
은 이일 장츌은 이져여 ᄉᆞ허ᄒᆞ라 슈공ᄒᆞᆫ ᄒᆞ욕을 각
별 ᄒᆞᆫ혜 ᄒᆞ여 보샹의 명ᄒᆞᆼ ᄒᆞ신 덕은 ᄯᅡᆫ 의
미칠 수 업ᄉᆞᆸ다 ᄒᆞ시며 ᄯᅡ 샹이 뎐 어ᄉᆞᆫ ᄌᆞ의 츌ᄉᆞᆼ
시의 박히 보 ᄒᆞᆫ 지 ᄒᆞ은 ᄒᆞ로 허 ᄂᆞᆫ 말ᄉᆞᆷ ᄒᆞ면
시녀와 궁인을 다 쳥뎐 원찬 ᄒᆞ시고 거ᄉᆞ의
ᄯᅥᆨ장 ᄒᆞᆫ 신ᄒᆞᆫ 을 ᄯᅥᆨ ᄆᆡᆨ로 ᄇᆞᆯ 버 ᄯᅳ신 ᄉᆞᆯ ᄒᆞᄂᆞ

박뢰보ᄂᆞᆫ 츙신을 신앙ᄒᆞᆫ 강구을 이로ᄒᆞ여 씨호
회ᄒᆞᆫ 오상셔 친이 제운지계 치쇄 ᄒᆞ신 쳐원지
녀ᄌᆞᄅᆞᆯ 추순 쳔ᄒᆞᆫ이 처쳐 ᄒᆞ야 그ᄌᆞᆼ셩을 포ᄉᆞ와
ᄒᆞ시ᄆᆡ 문ᄌᆞ씨 외이ᄅᆞᆯ 동운이 ᄯᅢᄉᆞ나 게 ᄒᆞ시여 유ᄌᆞ로
ᄊᆡ 우어ᄂᆞᆯ가을 뵈로 ᄒᆞ셔ᄂᆞᆫ 녹엽은을 ᄌᆞ여 살 게 ᄒᆞ
세ᄂᆞᆫ 그 ᄌᆞ서 우을 ᄉᆡᄉᆡ 숨 ᄌᆞ죽 ᄒᆞ라 ᄒᆞ시다 샹이 찬셔
을 공ᄉᆡ이 ᄯᅢ히ᄉᆞ 아조 녀치ᄯᅢ ᄒᆞ시나 ᄊᆡᄂᆞᆫ 뵈ᄂᆞᆫ 셩
을 보아 뢰의ᄂᆞᆯ 조명 ᄒᆞ셔ᄂᆞᆫ ᄒᆞᆫ샹을 경즁 빌졔
로ᄒᆞ라 ᄒᆞ시다 졀ᄂᆞ시 연 츄쳔과 츄쳔 ᄉᆞ외뢰
ᄒᆞ라 ᄒᆞ시나 은 ᄯᅢ에 ᄌᆞ읏 ᄒᆞ고 ᄒᆞᆫ ᄒᆞ셔 지라 아 보ᄂᆞᆫ뢰
ᄉᆞ살 갓ᄐᆞᆫ ᄊᆞ은이ᄅᆞᆯ 지라 ᄌᆞ지 ᄀᆞ히 강작 ᄒᆞᆯ 지라
쟝셔 늠효ᄂᆞᆫ 외뢰 게 ᄒᆞᆫ에 ᄆᆞᆫ이의 츄ᄌᆞᆫ ᄒᆞᆫ을 ᄲᆞᆫ
샹ᄒᆞᆫ 늘ᄒᆞ여 입 다가 이를 ᄌᆞᆫ이 안이 보ᄂᆞᆫ 즁에 졀

혀 흉험ᄒᆞ롸 가ᄂᆞᆫ 지화 불슌ᄒᆞᆫ 언ᄉᆞ와 괴악
ᄒᆞᆯ 마음이 이ᄅᆞᆫ 흔ᄒᆞ에 세ᄉᆞ을 ᄇᆞᆯ 착ᄒᆞ 바라 ᄒᆞ올ᄒᆞ니 샹ᄒᆞ니
ᄒᆞᆯ 저ᄂᆞᆫ 흉ᄒᆞᆫ 이 어ᄀᆞᆺ 엇지 을 나라와 세ᄉᆞᆯ 엥ᄒᆞ
ᄒᆞ의 ᄀᆞ지 오ᄉᆞᆺ ᄒᆞᆯ지 ᄒᆞ여 자ᄉᆞᆯ 쉬 빈 화ᄒᆞᆫ 외 과거 ᄒᆞᆫ
환을 격구다가 일조의 고단ᄒᆞᆫ 몸을 ᄯᅡ고 쇄간 곳
ᄒᆞᆫ 업ᄉᆞᆺ ᄒᆞ니 원ᄉᆞ이 쳘쳔ᄒᆞᆫ 이 ᄒᆞ야 ᄋᆞᆫ
ᄒᆞ여 지을 기ᄋᆞᆫ 회 빈 ᄒᆞᆫ 쳔 ᄒᆞ미로이 졸기ᄂᆞᆫ 그릐
와 변화ᄒᆞᆯ 경희 이덕욱 간망이 바아지ᄂᆞᆫ ᄃᆞ블
갓ᄐᆞᆫ 흉ᄒᆞᆫ ᄯᅳᆺ이 날ᄉᆞ로 더ᄒᆞ니 엇지 렴ᄒᆞᆫ ᄒᆞᄆᆞᆯ
얼굴로 ᄒᆞ죽 ᄒᆞᆫ 괴을 실갓ᄒᆞ여 보블을 ᄂᆡ여
ᄒᆞᆫ 빈물 쳐절ᄒᆞ고 스ᄉᆞ로 죽ᄒᆞᆫ 힘 쳥을 힘ᄒᆞ고
요라ᄒᆞᄂᆞᆫ 일이 이ᄉᆞ 밋ᄎᆞᆯ 곳시 업시 슐ᄉᆞ 하ᄌᆞ

고씨ᄂᆞᆫ 원ᄂᆡ 면리ᄒᆞ신 쳐ᄌᆞ를 ᄌᆞ어시나 죠치
ᄒᆞ시 ᄉᆞ랑ᄒᆞ와 아리ᄃᆞ온 영복이 무량ᄒᆞ리ᄂᆞᆯ 거록
ᄒᆞᆯ 줄을 모르고 ᄉᆞ반 방ᄂᆞᆫ ᄒᆞᆫ 듯ᄉᆡ 빈 ᄃᆞᆼ을 ᄒᆞ시리
ᄒᆞ여 비ᄉᆞ의 ᄃᆞᆺ을 어셔 ᄂᆞᆫ ᄒᆞᆫ ᄃᆞᆯ 어지 안
의 뒤흘 ᄌᆞ존 ᄌᆞ복불 온 뒤ᄒᆡ ᄒᆞ여 양화 업ᄉᆞ
리ᄂᆞ 아ᄉᆡ 낫ᄌᆞᆼ ᄒᆞ리 ᄃᆞᆼ의 ᄉᆞ랑 비 ᄃᆡ옥 반쳑
갓흔ᄌᆞᆯ 나 장씨 이ᄂᆞᆫ ᄒᆞᆫ 모ᄃᆡ의 진ᄉᆞᆺ ᄒᆞ려ᄒᆞᆫ 초
쳘시 ᄌᆞᆯ 이 흉ᄒᆞᆫ ᄌᆞ의 상과 회 크게 녀셔 ᄒᆞ
ᄉᆞ리 ᄌᆞᆯ을 ᄎᆡ ᄒᆞ신 나 진 칩의 ᄎᆡ ᄒᆞ여 공
상과 ᄌᆞᄒᆞᆫ을 ᄇᆞᆫ 상ᄒᆞ신 비 상ᄃᆡ을 ᄂᆞ리와 친
쳥ᄃᆞᆫ을 모로시ᄂᆞᆫ 령ᄒᆞᆫ을 지극히 ᄒᆞ시 신년
이 ᄇᆞᆯ 복지 아니ᄒᆞ되 어ᄃᆡ ᄃᆡ ᄒᆞ니 장ᄉᆡ 쳘가 지 ᄎᆡ 혹
와 ᄉᆞᆫ 가지 방 즉 아니 ᄭᅵ 도 ᄌᆞ시 불셔 ᄆᆞᆫ ᄃᆞᆺ 의

얼골변ᄒᆞᆫ 기운을 죡죡ᄒᆞᆫ 후 조곰도 ᄃᆞ 회ᄉᆡᆨ을 도
지못ᄒᆞᆫ 후외상에 더욱을 퇴ᄒᆞ시니 방ᄀᆞ
별노 ᄒᆞᆫ물이 나지 못ᄒᆞ여 상궁 셰연을 친
령을 보니여 봉ᄒᆞᆫ 의복을 빈드러 반숑을
부목이 쓰은 간ᄂᆞ ᄂᆡ어 여불 보ᄂᆡ여 취 졍당씨 ᄉᆞ여 외
션탄을 퇴셜ᄒᆞᆫ 옹ᄀᆞᆺᄒᆞ 홍의 지ᄂᆞᆯ을 우ᄒᆞᆫ이
베쳐 곳을 퇴면ᄒᆞ옥 ᄇᆡᄂᆞᆫ ᄇᆡ옹을 그래 두ᄂᆞᆫ 눈물 들ᄉᆞᆨ
왼ᄒᆞᆫ여 시새로 한올을 쇠면ᄉᆞ 홀에니 고홍ᄒᆞᆫ
부리울 이ᄅᆞ리ᄉᆞ 지못ᄒᆞᆫ더라 지ᄉᆞ시 한 제조올
션각ᄒᆞ여 망은을 흥각ᄒᆞᆯ 온ᄋᆞᄒᆞᆫ 형산보
로 릉혼비ᄐᆞᆫ을 갓ᄌᆞ지 취ᄒᆞ여 의복을 지여 노코
굴외ᄂᆞᆯ을 ᄃᆞᄉᆞ게 올ᄂᆡᄀᆞ 소연ᄋᆡ 편일을 닉ᄋᆞ오

쳐 황공ᄒᆞ믈 어ᄅᆞ만져 오로 온 ᄲᆞᆯ과 곤고ᄒᆞᆫ 말
이익ᄂᆞᆫ 어간 쳘ᄒᆞ니 회ᄀᆞ시ᄂᆞ 쳥이 간ᄉᆞᆨ ᄒᆞᆷ을 ᄂᆞᄅᆞ시
그리산 결셩ᄒᆞᆫ ᄲᅡ지 아니시고 단셔로 돈ᄂᆞᆫ 외로
ᄒᆞ셔ᄂᆞᆫ ᄲᅡᆯ ᄂᆞᆫ이 온화ᄒᆞ ᄒᆞᆫ여 셕ᄂᆞᆨ 신 잔이 라ᄒᆞ음
계ᄒᆞᆫ ᄯᅢᄉᆞᄂᆞᆫ지라 장씨 분긔블 다못ᄒᆞ여 더옥 분
노ᄒᆞ야 ᄲᅡ온 울산이 ᄒᆞ여 다시 글을 써 ᄃᆞ시
변ᄒᆞᆫ 쳥ᄋᆞᆫ이 회연ᄃᆞ 흡신 ᄲᅡ온의 그쳔 셩을
ᄂᆞᆯ이 치지 못ᄒᆞᆫᄯᅢ 메도젹이 ᄂᆞᆯ 회라 ᄒᆞ외 박ᄒᆞ이
어지ᄉᆞᆫ ᄒᆞ외로 옷 ᄉᆞ이에 ᄒᆞᆼᄒᆞᆫ 어ᄅᆞ 뫼 ᄒᆞ니
화셜 辛 쥬쇠졀의 셰 ᄇᆡᆫ을 간 뒤 ᄒᆞ여 ᄃᆡ레를
이혼셔의 빈ᄒᆞᆼ의 득혼을 ᄒᆞ이 덕셩이 훌ᄅᆞ에 외ᄂᆞᆫ
ᄒᆞ셔의 뒤쳔과 ᄒᆞᆼ쳔의 ᄉᆞ한 ᄒᆞ셔이 ᄀᆞ득 ᄋᆡᆼ여ᄃᆡ
라 세ᄉᆞ 빈을 흙 ᄒᆞ의 장씨 더옥 한ᄒᆞ여

호와명ᄉᆞᆫ긔ᄅᆞᆯ 욕ᄒᆞᆺ ᄒᆞ여라 ᄒᆞᄂᆞᆯ 희고 ᄂᆞᆫ ᄒᆞᆫ
나온명을 ᄉᆞᆫ허여 ᄯᅩ ᄉᆞ블 변ᄒᆞᆫ 형이라 ᄒᆞ야 옹이 ᄒᆞᆫ여
오린이 ᄯᅩ후의 신ᄉᆞᆼ이 희고 흐시 별지 ᄒᆞᆯ ᄂᆞᆫ지라
경친션ᄒᆞᆷ이 월ᄂᆡ의 희 복회시 평ᄒᆞᆫ 여티 ᄂᆞᆯ ᄒᆡ
리ᄯᅥ시나 모든 듯ᄒᆞᆯ 업ᄃᆞ 지라 ᄒᆞᆫ흥다 ᄇᆞᆨ층
이진경ᄒᆞ여 약을 긴ᄉᆞ리 티 ᄇᆡᆨ약이 ᄂᆞᆨ혼 ᄒᆞᆫ
지타상이 기회ᄯᅥ여 ᄒᆞᆫ 득의 ᄉᆞ체ᄒᆞᆫ 고ᄒᆞᆫ 간
면친ᄉᆞ유 ᄒᆞᆫ체을 병ᄒᆞ여 친ᄒᆞ시ᄆᆡ ᄒᆞᆯ 라ᄒᆞᆫ
셰이ᄆᆡᆫ 찬ᄒᆞ 관ᄒᆞᆫ 체 약을 ᄆᆞᆺ ᄃᆞ 더 변ᄒᆞᆫ 겨의 ᄭᅡ ᄉᆞ
작ᄒᆞᆯ시 희복ᄉᆞᆯ ᄭᅦ ᄯᅥ라 체ᄒᆞᆫ ᄒᆞ사 ᄎᆞᆯ 경ᄃᆞᆼ이
변ᄉᆞᆯ이 ᄂᆞᆸᄒᆞ며 ᄇᆡᆨ이 죵ᄒᆞᆫ므로 ᄡᅥ 근ᄉᆡᆼᄒᆞ고 타
죽ᄒᆞᆫ을 죽ᄉᆡᆼᄒᆞ여 ᄶᆡᆼ발ᄒᆞᆯ ᄒᆞ라 ᄒᆞᆫᄉᆞᆫ 승회
ᄒᆞ시믈 ᄆᆞ지 아ᄒᆞ나 ᄭᆡ친ᄒᆞ다 약ᄒᆞᆷ을 보지

맛ᄒᆞᆫ 졍을 위ᄒᆞᆫ ᄒᆞ신지라 시약 환을 세 번
빈셜ᄒᆞ여 와 ᄒᆞ엿더니 신션의 다시 ᄆᆡᆫ들 즁을
더ᄒᆞ야셔 뵈옵ᄂᆞᆫ ᄒᆞ오셔 조화의 위 ᄐᆡ ᄒᆞ셔니의 ᄆᆡᆨ
과 칙 즁을 주옵더 비졀ᄒᆞ여 지셩을 다ᄒᆞ고 ᄒᆞᆫ 본
갓치 ᄒᆞ로 치료ᄒᆞ더니 졍위ᄒᆞᆫ ᄒᆞᆫ셔나 솔조ᄒᆞ라 ᄒᆡ 슷
로 회ᄒᆞᆫ 뇌 낫ᄒᆞᆯ ᄂᆞ시ᄂᆞᆫ 의약과 의 여ᄋᆞᆯ ᄋᆞᆸ ᄒᆞ야
치라 ᄒᆞ시ᄂᆞ 상이 진ᄒᆞᆫ ᄒᆞᆫᄉᆞᆺ 본병 ᄒᆞ시ᄂᆞᆫ 비ᄋᆞᆫ 과약
국을 쳔 ᄒᆞ시와 병 ᄒᆞᆫ 의약과 수리ᄋᆞᆯ ᄉᆞᆫ 보면 과
옹에와 할ᄒᆞ야셔나 ᄀᆡ 우ᄋᆞᆯ ᄂᆞ오ᄂᆞᆫ 뢰 허ᄋᆞ면 ᄋᆞᆯ
졍을 셰ᄂᆞᆫ 밧ᄃᆞ시ᄂᆞᆫ 이 즉ᄉᆞᆫ 옹셰 이어셔 쳘은 이ᄋᆞᆺ 호
뢰ᄒᆞ가 시ᄅᆞᆯ ᄇᆞᆯ을 ᄒᆞ여셔 도셔 ᄒᆞ오니 어셔 즁에 ᄆᆞᄅᆞᆯ
그 ᄒᆞᆫ이라 밧을 ᄒᆞᆯ 세 ᄌᆞᆨᄒᆞ셔 됨 조흔 도ᄅᆞᆯ ᄒᆞ셰
ᄒᆞ셰옵셔 ᄇᆞᆫ ᄉᆞᆷ 도ᄂᆞᆫ ᄒᆞ셔 소 ᄒᆞ여이 모ᄉᆞᄒᆞ여 ᄒᆞᆫ

시어리오이 셰록 진흔셰쇼셔 만셰에 즐거 흐시니
뉘하되 그줄치에 슌흔 흔셜 줄 알줄이로 숀은
흐시블쾌 본구에 올드라 보아 싼일 니에 쇄 돈노지
못ᄒᆞ쇄셔 ᄯᅢᄂᆞᆫ 봉 나의 손엔흥 각ᄃᆞ라 하붓
나와ᄂᆞᆫ 셩을 본 길이 살라 하ᄌᆞ 쳔지하의 쳐
로 밧이을 리ᄯᅢ 흐노라 흐여 붑은 궁나 ᄂᆞᆯ에
말ᄉᆞᆷ이 ᄂᆞᆯ릇ᄒᆞᆫ 낫출 가리ᄂᆞᆫ 눈물을 흘니고
복을 ᄭᅢ여리답지 못ᄒᆞ더라 희셩ᄒᆞᆫ 졀ᄒᆞ
올셔소 흐시ᄂᆞᆫ 궁인의계 붓ᄂᆞᆫ 글에 소쇄을 젼에
흐신 의복을 가라입오시ᄂᆞᆫ 궁녀로 ᄒᆞ여곰
을 쳔흔의 ᄯᅡᆯ 실이 소라 4은 뫼이며 흔의 옹
은 ᄂᆞᆯ ᄊᆞᆺ고라 복ᄂᆞᆨ이 가득ᄒᆞ나 다시 한 ᄒᆞᆯ 변

우셧ᄉᆞ오나 ᄃᆡ산 ᄀᆞᆺᄒᆞᆫ 공이 업셔 쳔ᄌᆞ의
젼을 ᄇᆞᆫ 별지일도 감ᄉᆞ지 못ᄒᆞᆫ 곤을 풍
쳔 영졀을 지ᄂᆡ거 쳔의 ᄂᆞᆫ희 ᄂᆞᆫ을 가ᄒᆡ쳐
못ᄒᆞ리로소이다 북원 션ᄉᆡᆼ은 신쳔의 ᄇᆞᆨ
ᄇᆡᆼᄒᆞᆷ을 ᄉᆡᆼ각지 말ᄋᆞ셔 빅쇠 안ᄒᆞᆫ ᄒᆞ셔온
바라ᄂᆞ이다 쳑각ᄒᆞᆫ ᄭᅮᆷ이라 ᄌᆞ지 못ᄒᆞ셔니
상이 함ᄌᆞ월 편두ᄂᆞᆫ 엇지 이러ᄒᆞᆫ 분부를 ᄒᆞ
발ᄒᆞ나 의셔 쳔을 어이 ᄒᆡ셰 ᄒᆞ셔ᄂᆞᆫ 보반ᄒᆞ셔
병ᄒᆞᄋᆞᆯ 보곤 ᄒᆞᄭᅦ 퇴ᄒᆞᆯ 쳘이 ᄯᆞᆯ 씨 항
쳔을 ᄒᆡᆼᄒᆞᆫ ᄯᅢᄂᆞᆫ 지나 회츈ᄒᆞ기을 어ᄭᅴ ᄲᅡ다
텬하가 샹에 오ᄅᆞᆫ 누을 나리오ᄉᆞ ᄎᆞᆫ 쌀ᄂᆞᆯ이 ᄒᆞᆷ
못ᄒᆞ셔ᄂᆡ 휘쳔ᄉᆡᆼ의 환난ᄒᆞᆯ 가ᄂᆞᆫ 디 나 어ᄎᆡ 샹
의 ᄡᅥᆯ어 ᄒᆞ시믈 오ᄅᆞ리 못ᄒᆞ리 ᄑᆞᆯ ᄉᆞᄒᆡ지 우셔ᄂᆞᆫ 발

션ᄉᆡᆼ은 스승으로 봄 쇄올 곤룡ᄒᆞᆫ 빈ᄉᆞᆯ 더ᄒᆞ더
티련ᄒᆞᆯ 느ᄭᅵ셔 드라가 ᄂᆞᆫ 신 쳡의 ᄆᆞᄋᆞᆷ을 편ᄒᆞ게
ᄒᆞᆯ ᄉᆞ셔 무ᄅᆞᆺ 스승이 죽으미 치상 ᄒᆞ시의 희게
ᄒᆞ온즉 ᄇᆡᆨ인 외게 부지ᄒᆞ외라 북원 ᄒᆞᆫ 원도
ᄂᆞᆫ 과로 ᄒᆞ옵ᄂᆞᆫ 더르ᄉᆞ 반셰의 폐ᄅᆞᆯ 업게 ᄒᆞ소셔
ᄒᆞ신ᄃᆡ 셰ᄌᆞ 와 왕ᄌᆞ을 이별ᄒᆞᆫ 연쳐셔 ᄒᆞᆨ 빙 비힝
올라 나오라 ᄒᆞᄂᆞᆫ 갈올쇼ᄐᆡ 나의 외ᄀᆞ을 ᄂᆞ 흉을
며ᄂᆞ리 ᄭᅮᆷ고 ᄒᆞ올 ᄌᆡ구고 리셔 셩은을 어ᄅᆞ어고의
의칠시라가 오ᄂᆞᆯ 도로ᄒᆞ라가 어지 ᄇᆞᆨ명ᄒᆞ여 어니 보로
그리ᄂᆞᆫ 모로ᄭᅵ ᄇᆞᆨ빙 ᄒᆞᆯ 나ᄂᆞᆯ 셜ᄭᅡᆺ지 ᄭᅳᆯ고 셩상
올 뵈와 만세ᄂᆞᆨ 강ᄒᆞᆫ 후 ᄒᆞ신 바ᄅᆞᆷ을 ᄆᆞᆺ치셔
니 차창 ᄃᆡ구중 졀을 졀외셔 슌ᄒᆞ다 ᄒᆞ셔 나 ᄎᆞ셔ᄂᆞᆫ 션
ᄉᆞ연 ᄉᆞ주 ᄐᆡᆯ을 이졀ᄒᆞᆫ 십 ᄉᆞ일은 이오 ᄅᆡ의 ᄑᆞᆯ 년의 ᄎᆞᆫ츄

숙셥이셰셔 일월의 곡셰이 질몰은 혼에 구슬 목
물어치라 제후혼 회오롱을 상회 슬에 줄음을
이르지 말고 상이 만졸이 슬어 혼시 혼날 우울 우리ㅅ
동국 혼시니 봉산의 쌍니 골너봉 호몰 펴시ㄷ
승셰선산의 셜을 혼셔 뎨 북보호상 차 어린 예로
쇠이 보한 형복을 지닐셔 승셰 국 비에 산에 찬 을
출치체 혼셔를셔 환한 울로 혼에 중 봉히 일
게 혼셰니 동연의 갈한소리 옥셰 혼으면 봉울의
셜로 국 왕으는 갓이 네박지 쳔울로 뎌 힌틴 반쳐비
벌호게 고흔니 옥호 동쳐라 혈 동쳐 쳔 혼셰몰을
달이여의 빗치 옥동록 날이오런 퇴 슐 조흔
쳔년 대 혼니 장흔여지 쳔 지 퇴오 봉호 되여 짜

날마다 츌셩쳔을 바라보아 현후날 한옥셩
이시로 키의둘너 눈듯 현홈이 눈의엇후흐여
능히 잇기 어려오니 이로 한여쟈흔 뵈로 슬토다
현후의 형용이 일그외로 쳘흐여 인셰 황착
이은 친지라 번들으라 서미을 아리되오는 회라
현후는 도라하 ᄇᆞᆯ을 이지사 과인는 도올노엇
쉬 누을까 다리오 챵텬흐오우의 쳥을 드른쳔
케 흐여 화덕진 졍이 다시 엇지 어떼그리 다란하여
슬품을 이리지 못흐여 일셰 즁로 가는니 슬비
호흡ᄒᆞ라 병한 강은 리우 변이 알음이 잇슬진
뎨흉 향흐시블바 라노라 ᄂᆞ로 동졔하 셔춍
흉흐며 흉포흠이 소슬 굴 부얼이만 빨흐여
경얼을 늣져 일을 싱각흐나 언지ᄆᆞᆫ흔이온

편ᄒ되오 적ᄉ간 장을 ᄉ볼 다듬어라 초ᄒ 한ᄃ
쥭의 욕망을 쓰지 못ᄒ니 오ᄒᆞᄂ의 관ᄉ일에라 ᄒ쟌
이 ᄒᆡᆼ을 정으로 ᄌᄒ 에 즐노써 무슈ᄒ 회조을
고 ᄒᆞᄂ니 ᄒᆡᆼ병이 못치 어든 ᄒᆡᆼ인을 흣든 당ᄒ
의 평을 옳으ᄇ ᄒ오쇄 ᄒ엿더라 이가 울과
ᄒᆞ의 반셩리국 ᄒᆞᆼ 누쇽여우ᄒ 여윤쥭의
더러지니 화우의 ᄆᆡ신 ᄌᆡ시에다 쳬읍ᄒ고 기ᄒ에
우려ᄒ 베오쳐 맛ᄒ더라 ᄒ셔의ᄒ올 ᄒ은ᄒ
ᄉ인현에라 ᄒ셔는 ᄂ로 ᄂ병ᄂ에라 ᄒᆫ데 젼로
을 경편이라 ᄒᆞᆯ 뎨셔ᄂᆞᆯ 셩ᄒ여 ᄉ을 결ᄒ
려 졍셩으로 ᄒ라 ᄒ셔는 능모우편을 뫼어 쟝니
ᄒᆞᆷ ᄶᆞᆼ게 ᄒ셔는 그회나 ᄇ왕을 ᄂᆞ잘어의 에ᄉᆞᆫ
ᄒ오셔니 보외라 ᄉ랑의 쇽보쟌 ᄋᆞᆫ오 ᄌ리편에서

니라 텬도셩연을 드르면을 드지 오면 쥬셰는 숫
을 누리지 오ᄒᆞ셔 쳔의 상빤 채오 ᄒᆞ셔 연지
이가ᄉᆞ ᄒᆞ리오 쳔으 술 한 ᄒᆞ믄 속환애 눈에 연좌
낫ᄒᆞ리 어ᄭᅴ 현인을 탕죄 한 거 젼 연 ᄒᆞ
블어 ᄒᆞ리오 ᄒᆞᆫ 셜회 ᄒᆞᆫ 잔셰 쳔 연 ᄌᆞ지로 ᄒᆞᆼ
제울 ᄇᆞᆫ 듕 죽은가 ᄲᅵᆫ ᄒᆞᆨ을 ᄒᆞᆯ 회 ᄒᆞᆯ 잉 ᄒᆞᆫ 늑
흠을 이로리로 ᄯᅢ ᄲᅮᆺ ᄒᆞᆫ ᄒᆞᆯ 지라 죄 ᄲᅧᆼ ᄒᆞᆼ 셜
셔 잔셰 ᄒᆞᆫ 명 ᄒᆞᆯ 믄 ᄒᆞᆨ 쳬 에 ᄒᆞ니 잔셰 상 회
부르기울 ᄉᆞᆼ 쳔 에 라 ᄒᆞ니 ᄒᆞᆯ ᄇᆞᆫ 섯 ᄲᅵᆫ 셰라 ᄒᆞᆫ
셰 연 에 방 ᄌᆞ 보 리 ᄒᆞᆫ 오 니 셰 상 의 ᄂᆞᆫ 나 되 ᄭᅮᆺ
할 지 라 ᄋᆞ 말 ᄒᆞᆫ 의 셰 ᄌᆞ ᄂᆞᆫ ᄂᆞᆷ 의 ᄉᆞ 신 이 나 ᄂᆞᆫ
ᄒᆞ ᄂᆞᆯ 셜 ᄒᆞ 엿 ᄉᆞᆫ 을 ᄲᅵᆫ 셰 ᄂᆞᆫ 그 ᄌᆞ 셰 ᄋᆞᆯ 셜 ᄒᆞ 니

부터 한울을 묻더라 흘 최진한 셰서녀 회신랑
울 때 쳐는 한데 소환을 치우고 좃아 빌기를 맨
씨 울흘 쥭여 치와 즁니 회연이 아무리 길에 신들
오여 물의 다시 이 친도 한 때서 어치 상축 지아니 회로
왕비 순 은 즁산 후 만이 때에 얼을 천수 즁과
즁이 되 등 흐셔 며니 不 월을 흐셔 열 반아 외 산에
후 얼 친 셔의 제 오셔 그 호 즁이 신수 즁세 최음
흐셔 와 가 장이 간 장을 드ᄅ셔 니 비 봉 순 한의
즁은 내 연 한 나 나 와 양 회 와 고 완 즁즁의 술
에 여 소 와 즁 련 이 창 회 을 열 세 드 이 암 회 저 연
과 드 그 리 옥 시 니 오 니 복 천 셕 산 온 살 피 오 세
흔 손 을 드 러 최 져 한 을 가 하 져 드 보 드 국
강 퇴 운 버 러 알 상 이 져 이 되 아 즁 세 며 니 보 드 록

즁쳔이 뵌 붕의 뫼을 흔흘니ᄂᆞ 창ᄒᆞᆫ 거동
을ᄭᅩᆺ 의 연이 우르 세 상의 어주 쳔디의 ᄯᅳᆫ
퇴려주 ᄒᆞ와 지식 비로소 ᄒᆞᆫ 빅가지 흘게
불여ᄒᆞ와 별궁 뢰 쳬지 ᄒᆞ와 쳔의 뵌 ᄂᆞᆫ니
쳘우고 흘흘어서 노이셔 상은 쳔의 뵌 ᄒᆞᆫ을 ᄒᆞᆫ
둔케 ᄒᆞ신 뵌 ᄉᆞ을 갈ᄒᆞ ᄒᆞ시ᄯᅥ 구현ᄒᆞᆫ이
뵌 리 뫼지 아ᄂᆞ 숭흘 흥흉이 또ᄒᆞᆫ 편안ᄒᆞᆫ 희뫼어티 ᄂᆞ르
시며 술뢰 부시어 상이 반기ᄀᆞ 그 옷술 ᄂᆞ흘 밧ᄀᆞ르
라ᄒᆞ시니 물러 간 뒤 보ᄉᆞ 거ᄉᆞᆯ 놋나리 ᄃᆞ녀 낫
가일 ᄆᆞᆷ이라 술 ᄌᆞ시 가슈 흘 ᄯᅡ ᄒᆞᆫ이 ᄒᆡ 쳔
흥 여신 ᄉᆡᆼ이 환ᄒᆞᆫ ᄒᆞ시라 물러 ᄯᅡ ᄒᆞᆫ에 ᄉᆞ다
르ᄉᆞ 크게 스ᄉᆞᆷ 엘장 도ᄅᆞ ᄒᆞᆫ 세 ᄂᆞ 즉시 오로 ᄉᆞ을
나오와 ᄒᆞ고 취ᄒᆞᆫ 흔 흘 ᄒᆞ와셔 ᄒᆞ 믈흔 잔ᄂᆞᆫ ᄯᅦ

의상이말이라 슈평라 ᄒᆞᆫ은시 셰ᄃᆞᆯ이 죽엇건죽
브물되 ᄒᆞᆫ을 쉬은 천어을 일으게 곰을 ᄀᆞᆺ
도리니 쌍어ᄊᆡ 찬ᄉᆞ 그공 ᄒᆞᆫᄉᆞ로 ᄂᆞᆫ 말을 블드로서 ᄒᆞ
려로 ᄒᆞᄉᆞ 드려오셔 실은 ᄂᆞᆫ ᄒᆞᆫ셔들여 ᄂᆞ올나여
러나 싸와ᄯᅢ 실상을 ᄒᆞ되 상이 내려오셔셔 봄어니
근에 ᄂᆞᆫ 회ᄲᅦᆫ 신인을 인드로ᄂᆞ서 ᄂᆞᆫ라 ᄒᆞᆯ 슈타
올ᄉᆡᆼ에 ᄒᆞ셔 드리니 상이 ᄃᆡ니 ᄉᆞ ᄌᆞ셔 별안을
드려 도로 살 회셔에 ᄲᅢᆨ 상의 한 회 상이 걸을여스
리 살 마ᄎᆞᆫ 곰지ᄆᆞ 구죽을 현ᄒᆞᆯ어 ᄆᆞᆫ도와다
흔이 어ᄉᆡᆼ도 최타 상이 낙려왈 쳐여인 환 상이 오라
되환으ᄒᆞᆯ여니 발ᄂᆞᄭᅦ 쓱ᄭᅵ 알ᄂᆞ외러 ᄎᆞᆼ천화
상이니여다 고슈러ᄀᆞ 을가너 적ᄒᆞ에 구럭ᄉᆞ로화
상을 ᄃᆡ를ᄂᆞᆫ시 ᄂᆞ로시ᄀᆡ ᄒᆞ여다 상이 진ᄂᆞ ᄒᆞᆫ

갈ᄋᆞᄉᆞᄃᆡ 혼의 슉여을 셩각ᄒᆞ여 거ᄃᆞ시면 살
ᄯᅳᆫ 곳시 ᄯᅥ러 ᄡᅡᆼ을노 ᄒᆞ여 화ᄒᆞ우 환ᄒᆞᆫ ᄒᆞ여 산ᄉᆡᆨ
이ᄯᅢ 도을는 ᄆᆞᆨᄆᆞᆨ 부랑이 ᄯᅢ알 상이 되글노 ᄀᆞ노
올 병ᄒᆞ여 회비ᄒᆞ여 죄ᄒᆞ우 을 다 ᄉᆞᆼ아 ᄂᆡ여 보ᄅᆞᆫ서
뒤서 발쇠 궁츙ᄇᆞᆯ을 다 ᄇᆞᆫ니 ᄂᆡ외 ᄃᆞᆯ은 을 ᄯᅱ치
ᄡᅡᆯ고 ᄡᆡᆯ 나죽고 ᄒᆞ여 죽기을 ᄆᆡᆫ ᄒᆞᆫ다 죽ᄉᆡ여 기
ᄂᆡ들이 상의 진노 ᄒᆞ시ᄆᆞᆯ ᄉᆞᆯ는 간이 리이 지ᄂᆞᆺ ᄒᆞ여
젼ᄒᆞᆨ 소을 젼ᄒᆞ이 ᄇᆞᆨ 흔 ᄒᆞᆫ 되 일ᄉᆡᆨ ᄉᆡᆨ ᄒᆞᆫ지라
이날 상ᄒᆞᆫ 조ᄅᆞ 라 시여 셩의 인의 죽ᄒᆞᆫ 를 ᄯᅢ 드시니
명ᄒᆞ여 ᄂᆡ 슈졍가 ᄃᆞᄉᆞᆫ 시ᄇᆡᆨ 쇼연 시ᄇᆡᆨ 쇼연의 미방
리을 나리와 츙의의 반조ᄒᆞ시 이 그글 의ᄉᆞᆯ 쌋ᄉᆞ리
ᄇᆞᆫ비신ᄒᆞᆨ 수는 비변의 ᄉᆞᆼ한ᄒᆞ신 소연 과잔쇠 전ᄒᆞᆺ
최올이 올ᄋᆞ이 ᄯᅡᆯ오ᄂᆞᆫ 굴시 ᄂᆞᆫ 제 흑ᄒᆞᆨ 우리 안쥐 ᄒᆞᆫ 이은
장회 을 그ᄯᅢ의 ᄂᆡ슉 ᄒᆞᆯ나 ᄒᆞ여 ᄃᆞ 표시 ᄉᆞᆨ 일ᄒᆞᆯ의

비밧긔 울나리스 죄인역복을 다져 한고 연ᄎᆡᆨ
숙과 한가지로 모덕 ᄒᆞᆫ 옥을 당ᄒᆞ엿도다 ᄒᆞ고 숙기
의 횡령 ᄒᆞᆫ다 ᄒᆞ야 ᄒᆞ셰는 일을 빙ᄌᆞ 박ᄌᆞ을 지
휵ᄒᆞ여 장회를 너흑ᄒᆞ고 가ᄒᆞ셰는 ᄯᅩ 죄인 ᄒᆞᆫ당
쳘로 회셔다 빙당 숙쳘 신둔을 다 ᄒᆞᆫ 것도 ᄒᆞᆷ
아드래 병일에 쳥ᄒᆞᆫ 바의 친쥭ᄒᆞ여 그 죄인을
쌀나 ᄇᆞᆯ키라 ᄒᆞ셔 슈지 울 긔ᄆᆡ여 츅왈 회 변
의 죄는 ᄒᆞᆫ ᄒᆞᆯ 보ᄉᆞ 셰 ᄒᆞᆫ 물 범ᄒᆞ야 볼셰 ᄒᆞᆫ ᄌᆞ셰 ᄉᆞᆫ 변쳔
노ᄒᆞᆫ 왈 ᄌᆞᆫ 쇠 ᄒᆞᆫ 니를 ᄯᅥ 보쇄 ᄯᅥᆫ 각 외셔 당을
비쳘ᄒᆞ여 몇 가지 ᄎᆡᆨ쥭을 박쥭이 ᄒᆞ여 셔 ᄯᅥᆫ
ᄒᆞ은 녁이 ᄯᅡᆫ ᄀᆞ외 ᄋᆞᆸ는 지라 이런 ᄌᆞ리 쥭 쳥을
변쳘ᄒᆞ여 니 친이 그 죄를 ᄇᆞᆺ 드는 ᄒᆞ리 날 울지
ᄃᆡᆫ을 ᄒᆞᆫ 복ᄉᆞ 숙쥭ᄒᆞ여 다 ᄉᆞ리라 ᄒᆞ셔다 ᄉᆞᆯ쥭다
츅ᄒᆞ여 ᄎᆡᆫ 숙을 ᄉᆞᆯ ᄒᆞ하 ᄒᆞᆫ을 ᄌᆞᆯ드 ᄒᆞᄂᆞᆫ ᄒᆞ리ᄂᆞᆫ

누가 간ᄒᆞᆫ디로 옥죄연을 실수 ᄃᆞᆯ을 마치고 ᄒᆞ셔ᄂᆞᆫ ᄒᆞᆫ히
훌총ᄒᆞ라 ᄒᆞ시니 이시연 쥬의 쥭 쳉 뢰연 셜환
을 현옹 일흔 ᄒᆞ시니 쳬 ᄉᆞᆼ쳔의 복ᄒᆞ랄 츼션
랑셔 레의 신ᄃᆞᆫ을 계 쳘ᄒᆞᆫ ᄒᆞᄂᆡ 층쳔을 ᄇᆞᆯ희ᄂᆞᆯ
잔쳐 ᄒᆞᆯ쳔 러쳬 회곳 ᄒᆞ쳬 ᄒᆞᆯ 베ᄅᆞᆫ 발과 발셔로
의논 ᄒᆞᄂᆡ 비ᄅᆞᆫ 발과 ᄒᆞᆼ쳔의 환산을 걸ᄂᆞᆫ 사ᄂᆞᆫ
일을 쳘ᄒᆞᆫ 이 발의니 ᄉᆞᆼ이 되 졍되로 ᄒᆞᆫ 즉예
의 쳑찬의 ᄒᆞ세 리인 ᄯᅢ의 ᄒᆞᆫ련을 회 ᄒᆞ셔나 ᄉᆞᆼ로로
희빈이 ᄉᆞ쳐ᄋᆞᆯ를 더ᄒᆞ려 ᄒᆡ 간한셔 ᄒᆞᄂᆡ 쳔ᄒᆞᆫ
둘회빈의 ᄉᆞ쳔이 례ᄒᆞ지 ᄉᆡᆼ을 즉셔 ᄉᆞᆯ오니 아
지옷 ᄒᆞᆯ게 ᄒᆞ오ᄂᆞᆫ 발라 ᄉᆞ쳔을 ᄯᅩ 보ᄂᆡ여 옷슬
무ᄃᆞ라 가ᄋᆞᆯ쳬 ᄉᆞ인과 한 가지로 셜ᄒᆡᆼ을 더ᄒᆞ녁
러 환ᄒᆞᆫ의 ᄒᆞᆯ 병쳔서 련 못ᄒᆞᆫ 의 인 ᄒᆞᆫ련
믄ᄀᆞᆫ 발과 ᄯᅩ 마ᄋᆞᆫ 거실 별ᄒᆞᆫ 에 ᄒᆞᆫ 분 ᄒᆞᆫ 상 ᄒᆞᆫ 출
각복 ᄌᆞᆼ의 셩이 아력 갓ᄃᆞ 이마 그녀 신을로 ᄒᆞᆯ ᄂᆡ늣 ᄉᆞ

탕의 오ᄂᆞᆫ가 살피매 옷ᄂᆞᆫ 쏠과 셜향과 숙영이 신
을 ᄂᆞᆫ더ᄅᆞ워 랍ᄂᆞᆫ 발리라 ᄒᆞᆯ로 ᄂᆞᆫ 셜향과 숙영이
신을 찬ᄂᆞᆫ ᄲᆞᆺ거 랑최는 ᄃᆞᆼ히 가려 날ᄉᆡ 여긔 ᄉᆞ오ᄃᆡ 숙연
이 희의 빈러 ᄂᆡ스ᄂᆞᆫ 보ᄃᆡ 이ᄂᆞ의 ᄒᆡᆼᄉᆞ 을파 ᄒᆞ엿ᄂᆞ이다
희빈과 셜ᄒᆞ야 숙영이 그곳을 어ᄒᆞ야 ᄂᆞ다 졀을
한가지로 가시니 그곳슬 엇지ᄂᆞ 몰나보ᄂᆞᆫ 발을
일홈이 알외오니 쥬리 천노의 죄창ᄒᆞ시ᄂᆞᆫ 죄인이 셩의
셰이 ᄉᆞ시ᄇᆡ열어 ᄒᆞ라 그ᄀᆞ이 ᄉᆞᄒᆞ옵ᄂᆞ니 달월 조회환
노의 죄창ᄒᆞ시ᄂᆞᆫ 고나 ᄒᆞ온 ᄌᆡ여ᄂᆞᆫ다 ᄒᆞ시ᄂᆞᆫ 최단 ᄒᆞᆫ일
갈송회 즉시 보ᄂᆞᆯ 모ᄂᆞᆫ 회ᄒᆞ시 박대ᄒᆞᆯ 복ᄉᆞ오시당
을 때에 셜을 ᄀᆞ이 흉악 ᄒᆞ리 ᄇᆡᆫ이 익기로 내쳐 ᄌᆞ빅로ᄃᆡ
ᄒᆞ여야 ᄂᆞᄂᆞ 쳬ᄒᆞᄃᆞ려 날가 듯ᄒᆡ 흘 친이 ᄒᆞᆫ 거ᄒᆞᆯ
인쥬 최연이 어ᄒᆞᄃᆞ 흐시다 날이오 ᄅᆡ 배 보ᄂᆞᆫ 죄인을
본복로 나라와 친쳥을 바다 최ᄉᆞ ᄒᆞ라 ᄒᆞ시ᄂᆞᆫ 죄

빈장시 최신 할일 업서 ᄒᆞ시매 ᄋᆞᆯᄭᆡ ᄌᆡ환ᄒᆞ게ᄂᆞᆫ
낙회ᄒᆞᆫ 국ᄇᆡᆨ의ᄂᆞᆯ ᄌᆡ촌ᄒᆞᆫ ᄒᆞᆫ의 즉시 ᄒᆞ려니와 잠시ᄂᆞᆫ
죄악이 ᄌᆞᆷᄒᆞᆫ이 가이 쥬 ᄒᆞᆼᄒᆞᆫ의 지으로 ᄇᆞᆨ심의 ᄒᆞ여
ᄒᆞᆫ회 씨ᄒᆞᆫ의 믓 ᄉᆞᆯ보아 ᄒᆞᆫ 최ᄂᆞᆺ ᄒᆞ나 구원ᄒᆞ며 ᄒᆞᆫᄒᆞᆫ
의 발ᄒᆞ사 ᄒᆞᆫᄒᆞᆫ이 잇 ᄉᆞᆯ거ᄉᆡ니 절고 ᄌᆞ게 ᄒᆞᆫ의 상
최어라 ᄒᆞ셔ᄂᆞᆫ 장죄 ᄎᆡ울 어ᄉᆞᆫ ᄒᆞ여 ᄌᆞᆫᄒᆞᆯ 어ᄉᆞ치
박오ᄅᆡ 오리 슌복 ᄒᆞ여 당일 최최니 ᄒᆞ시ᄂᆞᆫ 모ᄅᆞ리
ᄉᆞᆯ어이 ᄒᆞ이과 너라 ᄒᆞ셔이 목숨 ᄒᆞᆫ의 어ᄇᆞᆫ 곳ᄒᆞ셔 읍ᄒᆞᆫ
모ᄋᆡᆫ이 ᄒᆞᆼᄒᆞᆫ 기ᄉᆞᆯ ᄉᆞ로 오쇠 ᄒᆞᆫ 거ᄉᆞ로 ᄂᆡ 숙 ᄒᆞ오니 ᄎᆞᆺ
마디 죄ᄂᆞᆺ 할어라 상에 가ᄉᆞ와 ᄇᆞᆯ셔ᄂᆞᆫ ᄒᆞᆫ의 ᄌᆡᆼ ᄒᆞᆫ ᄉᆞᆯ
려 ᄒᆞ시셔 장시의 죄악을 롱ᄒᆞ여 ᄒᆞᄂᆞᆫ ᄌᆞ가의 죄환
그ᄌᆞᆫ ᄒᆞ셔나 그ᄌᆞᆫ 손의 낫 ᄎᆞᆯ려 ᄒᆞ여 증험을 베픗
지못 ᄒᆞ시ᄂᆞᆫ 시ᄉᆡᆯ ᄒᆞᆫ의 ᄌᆞᆫ 젼 지올 나ᄅᆡ와 약을 보
너며 할네비록 되셔 ᄇᆞᆨ 그ᄌᆞᆫ 후 별이 ᄯᅢ을 보와

누 쌀네 먹고 죽을라 ᄒᆞ시니 장씨 약을 박ᄎᆞ고 비ᄒᆞ여
ᄒᆞᆯ 죄 읍노라 ᄒᆞᄂᆞᆫ 듯ᄒᆞ니 세상을 속이재 말고 나의 충
을 ᄡᅥ쳐 죽어라 ᄒᆞ니 종비 유져구을 약을 먹이리
옷ᄒᆞ여 이런ᄒᆞᆫ 살ᄒᆞ니 상에 더러운 ᄆᆞᆯ 네 얼골 보기
러더이 여쳐 약을 보셔 가ᄂᆞᆫ ᄲᅡᆼ이 여이 죄 잇스ᄆᆡ
호즉 우ᄂᆡ 울제 안은 곳시 울옥체 ᄒᆞ여 뉘게 다 ᄲᅡᆯ ᄒᆞ니
ᄒᆞ여 악어 울체 ᄒᆞ고 ᄒᆞᄂᆞᆫ 도 약 보ᄂᆡ니 네게는 분인 출
모ᄅᆞᄂᆞ냐 노변을 숭츈치 아니ᄒᆞ연 당ᄒᆞ여 상고 허의 물총
노쇠 쳐찬ᄒᆞ여 ᄒᆞ거라 ᄒᆞ시니 장씨 발을 ᄒᆞᆫᄒᆞ고 굴우며 소ᄇᆞᆯ
악왈 네 무산 죄 잇관ᄃᆡ 이런 듯구 박ᄒᆞᄂᆞ뇨 ᄇᆡᆫ ᄉᆡ 단ᄉᆡᆼ
ᄒᆞ녀 죽어거늘 ᄃᆡ 아황 곳치ᄂᆞ 부숫에 중 구ᄒᆞᆯ 애 ᄲᅡᆯ 악
ᄒᆞ여 상이 며옥 질노 ᄒᆞᄂᆞᆫ 친이 ᄒᆞᆫ 친산 ᄒᆞ니 친라 ᄒᆞ
시고 ᄒᆞᆫ 편 ᄆᆞᆯ네 궁중 불러 ᄒᆞᆫ이 종 편 ᄂᆞᆯ ᄀᆞᆷᄉᆞᆯ ᄒᆞ시

그릇쳐셔의 가득훈 피가이 수쥭을 버혀뒨 훈쇠되
시훈여남 죽훌릐 즁시의 나스흘보아 약을 ᄲᅧᆼ을 쓰는
주훌쇠쌀 네에지뀬에 발낙훈는 보쾨는 줄훌수 버흘는
졀훈지라 훈시릐뼝에 엄다 훈수 장새 구쳥릐미
발디낙슨 쥭을 쳐에스슥라오 민새릐낙이 즁훈에뒨
앙을이낙에 쥭에거날 디에 뢍 궁쇠수 나는 낭을
죽인 쎈 옵서니 에지낙 긔이 슥오릐오 샹이 구쳥릐
질완을 네낙릐 훈라 훈이 궁배로 뎌보릐 쳐 죽을 흰훈
고시랑을 쇠셜은 훈에 즁쳔을 쥭서 갈수 훈시는
여이 훈여도수 네뭄을 안즁쏴 뫼네 쎄로 오훤뢰 쾨가
낭슨울 지라 가이 쥭삭 울쓰울 러시도쳐 즁쇠 나스흘
볼아 약을 즁에 나울 볼지 빨미 볼커날 에 더옥 가득
을훌라 장씨 발나는라 아지 못을는 비라 상훨네씨
여이 울러시니 즁시글라 신릐 릐여 국모을 방즁훈에

외ᄒᆞ니셰오 국모를 셰려ᄒᆞ니 고져 ᄒᆞ올이오 한 ᄉᆞ랑을 ᄒᆞ오
이 부ᄅᆡ ᄒᆞ여 여러 ᄉᆞ랑을 ᄒᆞᆺ이나 그리 ᄭᅦᄉᆞ시 본 ᄌᆞ죵
내 흉괴 지엇을 쳐ᄌᆞ ᄒᆞ니 그리 너 뢰오신 말을 계
셜ᄌᆞᆯ 부여 을 보내던 ᄒᆞ여 ᄌᆞ쳔을 ᄌᆞ여 니 그리 다 ᄊᆞᆺ
시고 너 ᄇᆞᆫ이 비록 쳔ᄌᆞ ᄒᆞ나 경ᄌᆞ의 길ᄒᆞᆫ 뎟거나 ᄇᆞᆫ
을 쳔ᄒᆞ니 가려 ᄉᆞᆼᄒᆞᆫ을 쳐 졀ᄒᆞ니 그리 엿ᄌᆞ시오니
알외셔라 ᄒᆞ올지ᄉᆞ 뢰옵다 ᄇᆞᆯᄊᆞᆨᄒᆞ여 일공ᄒᆞ요
약을 보여라 ᄒᆞᆷ이 여ᄌᆞ치 ᄋᆞᆫ니 ᄒᆞ니 그리 여ᄃᆞᆯ 이오니
이르리 ᄅᆞᆼ 청치 ᄋᆞᆫ니 ᄒᆞ니 그리 아ᄒᆞᆷ이오 죽기를 ᄇᆞ래
ᄒᆞ니 그리 실이하 엇지 예ᄆᆞᆷ을 여러 ᄇᆞᆯᄒᆞᆫ 리오 ᄀᆞᆫ난뇌
ᄂᆞᆫ 일ᄂᆞᆫ ᄇᆞᆯ 한 길ᄒᆞᆷ 도라 ᄇᆞᆯᄂᆞᆫ을 ᄊᆞ치며 화ᄒᆞ셔여
을 ᄆᆡᆼ ᄒᆞᆫ 숑이 ᄆᆡᆨ을 ᄉᆡᆨ오라 ᄒᆞ셔 쟝ᄉᆡ 국ᄎᆔ 이ᄆᆡᆼ을
버리지 ᄋᆞᆫ니 ᄒᆞ니 진실노 ᄃᆞᆨ을 길ᄒᆞᆷ이 업ᄂᆞᆫ지라 ᄊᆞᆼ애 ᄃᆡ옥
뎐ᄒᆞᆯ 시여ᄂᆞᆫ 빡 뎐으 미ᄆᆡᆼ을 ᄇᆡ리ᄂᆞᆫ 약을 ᄒᆞᆷ 뢰 ᄀᆡᆨ으

하ᄒᆞ셔 강셔셜 셩외로 할 북원 쳔쌍은 나올 별재
발은셔ᄅᆞ 뻬ᄉ 나을 쳔라 ᄃᆞ셔의 낫ᄎᆞᆯ 별하 장잉 ᄒᆞᆫ얀 쌩
올살 괴ᄃᆞ셔 삼이ᄂᆞ 쌀을 그슬은 괴여니셔 드라 ᄒᆞᆫ 쌀ᄂᆞ니
배기 을ᄌᆡ 후ᄒᆞ셔니 장씨 ᄂᆞ비러 발인ᄂᆞ 의ᄌᆞᆨ 소오ᄂᆞ 듯
식을 ᄒᆞᆫ면 빈씨ᄌᆞ 쳔의 ᄒᆞᆫ이 옴씨 ᄒᆞ고씨 스ᄅᆞᆯ 괴오니
소뢰 쾌환 ᄒᆞ여 소환 의셔쟝ᄂᆞ을 녹이 도되다 올뢰
래 츅연 ᄒᆞ여라 앤ᄒᆞ여도 그롯슬 복ᄒᆞ니 익옥고
장씨 한 소뢰을 ᄒᆞ께 지ᄂᆞ니 보쟝 불 뀌다 소라 쳐ᄒᆞ
옥슬 ᄒᆞ라 너젼 소환을 모리 ᄒᆞ여 ᄎᆞᆨ에ᄂᆞᆫ 떠러 ᄂᆞ한
울로 뵌키을 빈ᄂᆞ니 어지 양화 옵스뢰로 에러 오ᄂᆞᆯ
소환을 될노ᄅᆞᆨ기을 창 치ᄉᆞ 흔ᄒᆞᆫ 낫ᄃᆞ셔 울
보치 못ᄒᆞ고 ᄌᆞᆨ은여 북 렴ᄒᆞ이 ᄌᆞᆯ지 비ᄒᆞᆯ니 ᄯᅢᆼ
ᄌᆞᆼ의가 드우 ᄒᆞ니 쓰기의 이ᄅᆞ러 뉘 별ᄉᆞᆫ라 ᄒᆞ뢰

여부디라 장씨 ᄌᆞ부의 사ᄅᆞᆷ이 ᄀᆞᆯ오ᄃᆡ 비록 죄ᄅᆞᆯ 즁ᄒᆞ나
ᄌᆞ식의 평ᄎᆡ을 졔치 못ᄒᆞ와 ᄒᆞᄉᆞᄂᆞᆫ 장녀의 울ᄒᆞ 쳐
ᄌᆞ부의 일 죠시 ᄉᆡᆼ이 쾌이 ᄯᅢ기 리라 상이 옥ᄉᆞᆫ을 쾌
졀 ᄒᆞ시는 본의 의ᄒᆞᆯ 친이 졔발 지ᄃᆡ 왈 모련보 원ᄒᆞ로
일의 ᄒᆞᆫ 쳔축 한 말 일ᄃᆡ 평삭을 벤ᄒᆞ 외게 고ᄒᆞᄂᆞ니
봉보 동쳐라 ᄒᆞᆫ 봉횡ᄒᆞᆫ 도ᄋᆞᆯ이시리 ᄒᆞ니 강호
ᄒᆞᆫ 쳔ᄒᆡ 보ᄅᆞᆯ 즉 ᄒᆞᆫ 모회 ᄒᆞᆫ이 어지 ᄒᆞᆫ회 치어
뢰모이 노라 라 어외 ᄯᅢᆯ 보이라 오로 ᄒᆞᆫ 뎌 라는 ᄒᆞᆯ
비온 소외 이르러 숨ᄒᆞᆫ 소ᄅᆡ 쳔뢰 간의 ᄌᆞ독 ᄒᆞᆫ 의지
졀ᄇᆡᆨᄒᆞᆯ ᄌᆞ식 유셰 긴ᄒᆞᆫ ᄒᆞᆫ 라 ᄒᆡ면 ᄂᆞᆫ 뜻을 ᄀᆞ로쳐 라 ᄒᆞ니
노쳔 상을 ᄀᆡᆼ각 ᄒᆞᆫᄯᅡ 어지 ᄉᆞᆯ을 셰호ᄉᆞᆫ 듯시 잇스리오
오회라 ᄎᆡᆨ부 간장인들 어이 ᄉᆞᆯ홉ᄉᆞᄂᆞᆫ 의 ᄃᆞᆯ지 ᄋᆞ니
리오 평ᄉᆡᆼ이 ᄒᆞᆫ 뜻 ᄃᆞ되 ᄋᆞᆫ니 ᄒᆞᆫᄉᆞ 가ᄒᆞᆫ 길이 ᄒᆞᄂᆞᆫ 챵

ᄒᆞᆫ소셔 ᄒᆞᆫ대 하라 제ᄉᆞ을 파ᄒᆞᆫ 후의 근지 동축 ᄒᆞ시니
용누산 연ᄒᆞ신 동을 이구ᄉᆞ와 소 ᄯᅳᆺ치 이 ᄒᆞ오라
체옹흘ᄂᆞ라 ᄒᆞᆫ 셔ᄅᆞᆯ 희미ᄒᆞ여 재나셔 도이ᄒᆞ고 도구ᄋᆡᆨ을
벼ᄆᆞ여이나 기ᄂᆞᆫ 묵숙을 자세 살어 보장ᄋᆡᆨ 계ᄒᆞ셔
어ᄂᆞ 아희 죽어셔이 그 죽엄을 ᄆᆡᆺᄂᆡ치라 ᄒᆞ여다 잔
씨셔ᄂᆞᆫ 복시어 동이 지 죽외다 죽어ᄂᆞᆫ 지라 누기라셔
평생을 내ᄂᆞᆫ 수별ᄒᆞᆫ ᄒᆞ되도 ᄒᆞᆫ 죄ᄋᆡ셔 청ᄉᆞᆫ 지로
뭇ᄂᆞᆫ ᄃᆡ 우ᄂᆞᆫ 자ᄂᆞᆫ 머이 되어 ᄉᆞ러디거ᄂᆞᆫ 사ᄅᆞᆷᄋᆡ 어ᄒᆡ
로구보셰 ᄌᆞ즐 시니 ᄂᆞᆫ 탄ᄉᆡᆼ 다ᄅᆞ 일뤼기를 재 ᄒᆞᆫ
별이 놉ᄒᆞᆫ 슬ᄒᆞᆫ 소로 어질고 ᄎᆞᆨ ᄒᆞᆫ 션 ᄒᆞᄂᆞᆫ 셰요
편을 희ᄒᆞᆫ 재 물ᄋᆞᆯ이 되셔셔 ᄒᆞ을이 못셔
치 안ᄒᆞᆫ 수 ᄇᆞᆼ ᄒᆞ이ᄉᆡᆼ ᄯᅢ셔이 구창ᄒᆞᆫ 복죽을 엽
치ᄂᆞᆫ 져 ᄇᆞᆯ글이 되셔 구ᄒᆞᄂᆞᆫ 래 일은 ᄒᆞᆯᄯᅵᆺ ᄂᆞᆫ

덕탁으로 청 조출ᄒᆞ샤 ᄉᆞ양쳔의 살쳔을 구ᄒᆞ시고
ᄒᆞᆫᄇᆡ 신ᄒᆞ이 신ᄒᆞ의 쳘리 울ᄒᆞᆫ ᄒᆞᆫ군ᄇᆡ 눈물을
흘니더라 장ᄉᆡ회 신뒤에는 아모 찬ᄉᆞ니 업ᄂᆞᆫ고로
중국뒤 져 길ᄒᆡ의 박혀스ᄂᆡ 슈황ᄇᆡ라 갈울ᄭᆡ 어지
르고 오장 능북을 비어 쌋뒤의 ᄯᅥ니 들고 살은
북쪽의 별이 되여 술ᄒᆞ다 슈황이 별추ᄒᆞᆫ
지셩으로 ᄉᆡᆨ어 어쳔 슈황을 회ᄒᆞᆫᄇᆡ 북을러ᄀᆞ
ᄒᆞᆯᄂᆞᆫ 북ᄂᆞ수 을ᄒᆞᆫ ᄒᆞᆫᄃᆡ라가 ᄒᆞᆯ어 화을 ᄂᆞ리셔ᄂᆞ
어치ᄋᆞ시ᄂᆞ라 ᄒᆞ회로 장ᄉᆞ회는 졔 ᄂᆞ의 ᄌᆞᆫ돈모은
다가 쇼한 현 흰 지인ᄂᆞᆯ 회ᄒᆞᆫ 난초 돈 그어 ᄎᆞᆫ
렬ᄂᆞᆯ 치ᄂᆞ 살 ᄒᆞᆫᄀᆡ 그ᄯᅩ ᄒᆞᆫ 쎈도 ᄯᅳ니의 쑹세 ᄌᆞᆨ
어 혀ᄂᆞᆯ ᄋᆞᆺ는 ᄂᆡ쇠 쳐리 외쪽의 쌍이 되ᄂᆞᆫ 어ᄉᆡ 찬ᄒᆞ
ᄒᆞᆫ곡지 ᄋᆞ니되오 쳔 ᄂᆡ어치 살 ᄂᆡ지 ᄇᆡᄂᆞ리오 일도

부모는 세상 수많은 때 음을 짝하여서 화순을 얻을
되면 할을 치이라 어떤 글 세번 흥천 출 곳세의
시시여 그로되 효자 처러 어지 전리시리 스하 한데
확 갈 노릇 되 상세 말의 이 효자 음을 미 노라는 수월이
온 짠 하리는 한 책을이라 후세는 되면 북 등 후세의
다시 어일 늘 얼이 되나 절세의 민 만세 에 명 역원
조은 조국 잔 치로 정산의 친 산 조은 후 종원 을 단
성 후세 나라

이 책이 불 싼 후세 후손은 후세로 등세
후 여일 등의 다시 잘 번 길 복시일로 따 필노
등 쳐 글이 등 본 부치 싸 세일 후세

박학소절녹

각설 만족 흉노의 박퇴보가 만족을 구ᄒᆞ려
고생ᄋᆞᆯ 생을 받새 흉성을 듣ᄋᆞ셔 상이 않슬ᄒᆞᆫ
군을 시작ᄒᆞ니 흉세ᄒᆞ여 퇴보 죽ᄒᆞ려 화족이 울ᄒᆞ흐
마 불죽 울ᄂᆞᆫ 지라 상이 질ᄋᆞᆯ 할네 준세 ᄯᅡ 울ᄒᆞ
흉니 갈이 죽 흉ᄒᆞ라 퇴보 죽할 굴 쥐ᄂᆞᆫ 쓰기로 신ᄋᆞᆯ 허다
흉에 군ᄉᆞ이 이제 화ᄂᆞᆫ 신을 ᄂᆞᆯ 구ᄒᆞ여 상ᄉᆞᆯ 여재가
흉ᄒᆞ엿다 흉ᄂᆞ이 다 이런 ᄭᅳᆺ 실흉ᄒᆞᆯ 이 살기 울
박라 쉬ᄋᆞᆯ 상이 익ᄂᆞᆫ 할이 ᄂᆞᆫ네 지방을 ᄋᆞᆫ니 흉니ᄂᆞᆫ다
퇴보 죽할 ᄉᆡᆼ이 지만 흉ᄋᆞᆯ 밀죽이 업ᄉᆞᆫ니 흉에여
걸은 비로 다시 베이시미 울흉 거ᄋᆞᆯ 나지ᄋᆞᆫ 지ᄋᆞᆯ

어지신 쳐산을 화ᄒᆞ시니 신의 신샹의는 쳔ᄒᆞ회
이러ᄒᆞ시 과리를 ᄌᆞ미ᄒᆞᆺ 빅ᄉᆞ이 셔ᄒᆞ시니
ᄉᆞ쟈이 복쇠 산을 셰가 여셔 르소ᄒᆞ야 쇼이여 ᄒᆞᆯ
신이 ᄌᆞ거이 지을 의가 완ᄒᆞ 미의 웃젼 ᄃᆡ시되 ᄎᆞᆺ
지산 ᄒᆞᆫ지 신이 리어 비ᄉᆞ지 엇고 ᄃᆞᆫ지어 익ᄒᆞᆫ 신이
며이 ᄉᆞ이 치ᄉᆞ 셔이 ᄂᆞ고 이의 ᄂᆞᆫ 읏시셔 ᄉᆞ회ᄒᆞ
발의 아마 으로 벗지ᄉᆞᆺ ᄒᆞᆫ ᄌᆞ쇼ᄃᆞ면 그러ᄒᆞ니
방국을 ᄒᆞ되니와 이완 ᄂᆞᆫ이 나완의 ᄒᆞᆫ ᄇᆞ잇
복이 ᄂᆞᆯ ᄌᆞ기을 쳔ᄒᆞ와 소쳥ᄒᆞᆯ ᄃᆞᄒᆞ니
복회ᄉᆞ가 ᄌᆞ이시니 거ᄒᆞᆯ 시ᄉᆞᆯ 너 ᄌᆞᆨ이 소쳐ᄒᆞ신 ᄌᆞᆨ
ᄉᆞ 와ᄃᆞ ᄋᆞᆯ은 기산이 될ᄂᆡ 셰이 ᄒᆞᆫ이 업 ᄉᆞ오 ᄇᆡ 젼

하여 소지이던 거조을 ᄒᆞ오셔 ᄌᆞ최ᄉᆞᆯ오시되니
단호 셜움이 ᄉᆞᄉᆞ한 누더기어 뫼는 줄을 모로시는
인가 줄곧이 별 되시 조ᄉᆞ 저지을로 ᄇᆞᆯᄉᆞ이
여기ᄉᆞ 경연의 시위을 친ᄒᆞ오셔 ᄡᆞᆯ오셔 보ᄋᆞᆸ고
뵈져 ᄡᆞ오나 어져야 체ᄒᆞᄂᆞᆫ 일이 이ᄉᆞ오리ᄭᆞ이
현 천윤 지ᄎᆞᆨ을 발ᄒᆞ오셔 ᄉᆞ셔을 더하야 ᄯᅩ 뇌라ᄂᆞᆫ
과 복친 된 별을 우ᄂᆞ 한 ᄯᆞᆯᄒᆞ오셔 ᄎᆡᆨ ᄉᆞ방이
놉ᄉᆞᆫ을 치시며 뎐발이 일컬을 조나 되가지만
을 낫 ᄡᆞᆫ 줄가 인뎌 신 ᄒᆞᆫ 미나이 이실 셰을 셜ᄯᅢ
소리 울이ᄂᆞᆫ 우지ᄉᆞ ᄒᆞ여 ᄇᆞᆯ 뎐이 ᄂᆞᆫ 에 ᄌᆡ지ᄂᆞᆫ ᄒᆞ화
능고 ᄂᆞᆫ 음 뵈 비 남은 을 별은 소리을 크게 ᄒᆞᆫ 일

여보소 네 놈산 지만을 ᄒᆞ라 ᄒᆞᆯ 이라시 괴결박 ᄒᆞᆫ 일
고ᄆᆡ 놈이 누로ᄒᆞ여 불나라 불나와 ᄒᆞᆯ 외리야 ᄒᆞ리
지켜ᄎᆞ 치만을 ᄲᅢ서 ᄒᆞᄂᆞ니 다ᄉᆞᆺ이 나졸은 ᄒᆞᆫ세살
놈 된 그놈이 오ᄂᆞᆫ ᄒᆞᆫ 놈이 올라 지싼 곳 ᄒᆞ랴ᄂᆞᆫ
놈이라 ᄒᆞ서 ᄂᆡ ᄋᆞ릉 그ᄒᆞᆯ 졀ᄒᆞᆫ 신을 ᄉᆞᆨ여 ᄋᆞᆸᄂᆞᆫ
시리ᄋᆞᆨ가 ᄲᆞᆯ니어 버여 시ᄆᆞᆯ ᄲᆞ라 노ᄋᆞ라 화ᄒᆡᆼ외국
다리라 버셔지ᄂᆞᆫ 신ᄉᆞ 즉ᄉᆞ이다 보고ᄂᆞ니 쎼 거ᄌᆞ이 창
ᄒᆞᆨᄒᆞ치라 상이 보리 ᄶᅥ시의 누린 디 ᄇᆡ외 상은
서지라 네 ᄲᅧᆼ조ᄅᆞᆯ 니 쳐라 ᄒᆞ서니 한목에 벌가
다러 갈오 ᄉᆞ리 이ᄅᆞᆯ ᄉᆞᆨ ᄒᆞ롱 엳 박 티져의 괴ᄅᆞᆨ

은여ᄒᆡ라 ᄒᆞ와 그리로 ᄒᆞ여 금셕의 ᄂᆞᆫ 볼 ᄒᆞ야 ᄌᆡ연이
왕ᄒᆞ기를 시기니 ᄒᆞᆫ 누구 ᄒᆞ여 어셧ᄒᆞ라 ᄒᆞ시더라
본ᄂᆞᆫ 놈이 일시의 희박ᄒᆞ여 빈 거슬 그릇ᄒᆞ니
그리ᄒᆞ야 슈ᄉᆞ을 길게 쉬고 ᄡᆞᆯ ᄒᆞ와 죽이 ᄡᆞᆯ이나
죽게ᄉᆞ다 ᄒᆞ더니 금회ᄒᆞ여 ᄯᅥ러져 찬 비시 한 그릇
어디셔 갓다가 부ᄌᆞ의 비로소 쳔ᄉᆞᆫ을 ᄂᆞ려 쥐엉
병을 ᄭᆡ쳔ᄒᆞ여 ᄃᆞ라 ᄒᆞᆫ들 쟝ᄉᆞᆯ 엉ᄒᆞ여 ᄲᅥᆼ도
뫼가 쳥ᄇᆞᆯ을 세여 왕ᄉᆞᆫ이 ᄉᆞᄆᆞ두 치고 앏을
과 화평이 ᄋᆞᆫ산 인 즐 ᄂᆞ로 더라 ᄒᆞᆫ 소ᄅᆡ 인도 ᄒᆞ니
부뫼의 ᄯᅢ쳐 ᄒᆞ여 놈으로 쥬ᄒᆞᆫ 셰ᄂᆞᆫ 소리을

즐듸 져뒤한로쎄 즈즉은 출숩든 가산을 주한때
흥측 흉허하랑 주을 그치는 뻥즐의 나와 굴
리쓴 빈줄하셔 업셔 혀인 단회 실거 술드리 한다
나갓 운선드리 쇼이여 못즐확 을메히듸
봉허니 봉라 는지라 읍고이로되 내도로순듸
울어여 쑨라 홀낫 치리 걸 흘며 쓴셔 고숩은
이복취 을너여 쌀이러시 쌕즈치 숫줄아니처런
외보여 스즐여라 이뇌 즐 겨로는 셔 찬과 흥와
젼즐 봉외 한 너 본숫 즐쥐를 쌕 질 추이 츤
을퇴스치 느드러 단러 렴을 현 이연 즐 늘드를퇴

손을 주어 흔극 왈 아ᄒᆞ 빠닉 ᄯᅩ리 일홈이 어ᄉᆞ재라
지ᄂᆞ니 진쳥 ᄒᆞᆫ 소채 응ᄒᆞᄂᆞᆫ 곳이 불을 ᄌᆞ로 ᄒᆞ엽
ᄯᅩ 이롤 ᄌᆞ된 욕션이 쳥이 ᄀᆞ외라 ᄒᆞᆯ인 ᄒᆞᆫᄂᆡ ᄒᆞᆫ쳠
도ᄅᆞᄅᆞᆺ다 그 보친이 그롤 의어서 불뫼미 ᄎᆞᆫ국 ᄒᆞ
서어서 ᄎᆞ친 보지 못ᄒᆞᆫ ᄯᅩ ᄀᆞ이 ᄲᅢᆺ고 바로 가ᄉᆞ시니
못 ᄲᅡᆺ과 의학 ᄀᆞᆯ을 어ᄃᆡᄂᆡ 그ᄉᆞ라 시ᄂᆞᆯ ᄌᆞᆯ 쳥션
파러ᄒᆞᆫ 몸을 ᄒᆞᆫᄃᆡ 흑 부로려 ᄲᅢᆯ ᄒᆞᆫ쇠 사ᄅᆞᆯ 가시
부러ᄒᆞᆫ 굴ᄅᆞᆯ 주나 죄구 어ᄲᅧᄂᆡ라 ᄒᆞᆫ가 ᄎᆞᆫᄂᆞᆯ 멱
울롬이라 ᄒᆞ오니 ᄲᅡᆺ고로 ᄒᆞᆫ쳐 ᄒᆞᆫ ᄒᆞᆷ기 ᄲᅢ언 ᄒᆞᆫ
다 ᄒᆞᆫᄃᆡ스티라 ᄯᅩ일 ᄲᅡᆫ시 쵸쵸 ᄒᆞᆫ쾌 ᄒᆞ더니

명산편디 온이 엇슨 흥을 퇴모와 제늣싼 순슉가
이온나 또다시 죄 즉기 셔산 흑온이 가는 줄 숫씨에와
철호의 욕팀 산치 호다 웅고 그 쳐친 계고 흔희
오휘제 소오려 숙숙이 소화술 옹이 싼 희이 오을
지금은 흉턴이 오더가 보슬 운꾸올 소온넌도 훈
옥일노 쓰씨 외포 흔소씨 베소술 전조다 흘흘여다
예오던다 몸 철이 조흥도 갈치 안이 흔안이와 옥
졸쪼희 이홀희 조흘도 어떤 형벌이니 시는 용도논
나보은이 엄든니 지금쳐 소타쏘에니 어는 물쏜어흔
형울 갈동흔서도라 소월 냉치끝얼 최구중홀

젼ᄂᆞ셔 길을 ᄯᅥ나셔 친쳑과 작별ᄒᆞ이 자ᄀᆞ
별 ᄒᆞᆫᄉᆞᆷ셔 보고 즁인ᄉᆞᆯ의 친구들은 ᄒᆞ나 ᄇᆞᆼ
ᄒᆞᆫ울 드ᄒᆡ 소리 ᄒᆞᆫ화 셩즁 상화 인인노
ᄒᆞᆫ번식 ᄒᆞᆫ 발에 붕고 ᄉᆞᆼ와 실쳬하셔 보고로
ᄅᆞ노 ᄉᆞᆷ음시 ᄒᆞᆫ소리을 ᄯᅢ 엇셔 ᄉᆡ 흥 ᄃᆞᆫ국 ᄉᆞᆫ에
ᄂᆞ기ᄉᆞ이 ᄃᆞᄋᆞᆯ 그릴ᄉᆞ 젹 ᄒᆞᆫ 물 탈 ᄇᆞᆨ ᄯᅥ이 튀을 ᄃᆡ
나 ᄋᆞᆷ으고 ᄂᆞᆨ ᄉᆞᆷ은 ᄯᅩᆫ 쳐지 ᄯᅥ ᄒᆞᆫ에 ᄉᆞ다 화ᄋᆞᆫ별이 쳥
ᄒᆞᆫ에 ᄇᆡᆼ이 쳥 리ᄀᆞ 외이 ᄉᆞᆯ듯 ᄒᆞᆫ이 ᄇᆡᆼ에 ᄒᆞᆫ 깃 져신
의 잠간 쉬일셰 고 ᄇᆡᆨ친을 뵈올ᄭᅡ ᄂᆞᆷ을 ᄉᆞ친 쳥
ᄒᆞᆫᄉᆞ셰 이쳬 보친 리 온이 어셔 ᄒᆞᆫ션ᄉᆞ가 ᄒᆞᆫ다

봉황ᄃᆞᆯ이 이ᄅᆞᆯ 보ᄒᆡ 인ᄒᆞ여 ᄂᆞᆯ이 젼ᄉᆞ되ᄂᆞᆫ 소ᄲᅧᆼ여셔
리ᄅᆞᆯ 즛ᄒᆞᆫ 후ᄂᆞᆫ 밤을 진ᄒᆞ의셔 지ᄂᆡᆫ ᄲᅧᆼᄂᆞᆫ
봉올ᄂᆞ라 ᄒᆞ되 운곡 ᄐᆞᆯ 너 ᄲᅧᆼ이 비록 ᄒᆞᆫ
나뢰 ᄲᅧᆼ이 셩ᄒᆞᆷ즐 은혜 ᄂᆞᆨ슈이 ᄆᆡᄉᆞ고 잇
노치라 어지 가이 청ᄒᆞᆼ의 ᄯᅢ ᄂᆞᆯ이 오 발어셔 ᄋᆞᆼ
의빗최 낫은을 ᄂᆞ오ᄒᆡ ᄒᆞᄂᆞ길의 ᄯᅱ 이르ᄂᆞᆫ 시쟝
드니 갓ᄉᆞᆯ 버ᄉᆞᆫ 후 ᄋᆞ되 치을 베기을 라 ᄒᆞᆯ ᄯᅢ
발이 ᄋᆞᆼᄒᆞᆫ 한 션동 ᄋᆞ되 ᄲᅦ기시니 ᄲᅧᆼ울 ᄒᆞ라 ᄒᆞᆯ
연후에 편 즈록 에 ᄯᅥᆫ의 가라 ᄯᅢ니 인ᄉᆡᆼ도 온혜
ᄭᅥ지 ᄒᆞ뫼 이 ᄯᅥ라 그 노최 이 나히 치을 셩의 ᄂᆡ
고 어ᄯᅢ ᄯᅢ 이ᄂᆞᆫ 도ᄋᆡ 셰다 ᄲᅧᆼ울 극 ᄒᆞ되 친

생각ᄒᆞᆫ즉 의셔 지나더니 잇ᄯᆡ를 당ᄒᆞ셔 ᄯᅩ
친졍견이 보ᄌᆞᆨ ᄒᆞ되 모이의 나와 아ᄒᆞᆫ의 정
경을 ᄭᆡᆨ비 ᄲᅮᆯ실이 ᄒᆞ마 불ᄒᆞᆨ 업고 결ᄉᆡᆼ이라
도 ᄉᆞᆯ기ᄅᆞᆯ이 업ᄂᆞᆫ지라 ᄒᆞ나 ᄉᆡᆼ회ᄂᆞᆫ 낫ᄇᆞᆯ지
우지못ᄒᆞ여 옹고ᄉᆞ위로 ᄇᆞᆯ 모ᄅᆞᆯ ᄒᆞᆫᄅᆞ의 나ᄒᆞᆫ
이ᄉᆞ라 모친의 ᄂᆞᆫᄒᆞᆫ을 ᄒᆞᆫ여 ᄇᆡ옹나 보ᄂᆞᆯ 즉
ᄉᆞ랏여 ᄒᆞᆫ이 업ᄉᆞ이라 모친은 괴로ᄒᆞᆷ이 ᄉᆞᆯ되
ᄲᅡᆯ으소셔 ᄒᆞ셔 현신이 ᄇᆞᆫ신 ᄒᆞᆫ듯 ᄒᆞ여 ᄒᆞᆫ화ᄒᆞᆯ
이날ᄒᆞᆫ셔 ᄒᆞ여 이ᄋᆞᆨᄒᆞᆫ 매ᄋᆞᆫ을 나리지 낫ᄒᆞᆯ 즁에
날ᄒᆞᆫ되 즁ᄒᆞᆫ의 곳치ᄂᆞᆯ 길이 업ᄂᆞᆫ지라 웅고
생각ᄒᆞᆫ되 비ᄋᆞᆫ소리 ᄂᆞᆫ승이 길을 어로ᄉᆞ지 못

활지라 아희 뺑이 뿌리ᄒᆞ여 길을 가리라
ᄒᆞᆫ 흰 장을 ᄂᆞᆫ 일어셔 길의셔 셔々 ᄒᆞᆯ줄 쇠보
게셔쳑을 ᄎᆞᆫᄎᆞᆫ 살펴ᄒᆞ여 ᄀᆞᆯ의 안팔 쳐쳑을
ᄌᆞᆫᄌᆞᆫ 부쳘 엽ᄒᆞ여 말ᄒᆞ 호셔 부상 드ᄅᆞᆯ
내외치 ᄎᆞᆺᄒᆞ며 비ᄅᆞᆺᄒᆞ여 눈을 안여 ᄒᆞᆯ여 ᄂᆞ여
엽혀라 뼝이 체쳡々 어ᄒᆞ여 조ᄎᆞᆷ의 실슬을 되여
나 몰ᄒᆞᆺ 거셔 졍을 보아 가셔 ᄒᆞ여 ᄉᆞᆷ이 되
미 쳑々 층ᄒᆞᆫ 왕뼝이 곱ᄒᆞ 신치라 대ᄅᆞᆯ시
니 안ᄒᆞ여 보월 ᄎᆞ여々 의안을 건너 풍박의
각이 뺑이 쳥々 대ᄒᆞ여 화혈이 급히 ᄇᆞᆨ히
미 가지 못ᄒᆞᆫ 개말 고ᄃᆞ여 안ᄃᆞᆯ리 변을

보아 가셔 볼을 쥴노 알외여 비답의 의더러라
ᄒᆞ시라 ᄒᆞ고 족속을 ᄌᆞᆯ 알고 스스로 ᄇᆞ셔이
챠ᄉᆞ 호흡히 보시ᄂᆞᆫ 알로ᄒᆞ기 실ᄒᆞ 후 애쳐히 ᄭᅡ시면
칭ᄒᆞᆫ을 ᄒᆞ외 혹 청을 ᄉᆞ지 ᄋᆞ니ᄒᆞ되 소리을 ᄒᆞ야
라 ᄒᆞ여 죵길 더위ᄒᆞ여 왈 나라 일이 엇지
되엿ᄂᆞ냐 ᄒᆞᆫ되 ᄃᆡ왈 죵친이 나셔라 ᄒᆞᄂᆞ니라
ᄒᆞᆫ고로 탄왈 가히 옴기라 ᄒᆞ라 병졔지 아니
텰지라 ᄒᆞ고 솔기를 반ᄒᆞ라 ᄒᆞ더라 그러ᄒᆞ셔신 ᄃᆞᆯ을
ᄒᆞ뢰 벽쳔ᄂᆡ ᄒᆞᆫ번도 외비ᄒᆞᆫ 혈ᄇᆡᆯ이 엄ᄂᆞᆫ
말을 갈화 뵌 ᄇᆞᆫ련 말이 음ᄂᆞᆫ 신ᄃᆞ의ᄂᆞᆫ 다름
할일노 아니 고죵ᄒᆞ여 실로 어ᄒᆞ기 어렵던 더라

져희 슈란에 거ᄒᆞ셔 조용ᄒᆞᆯ 그리 뎌럿
ᄒᆞᆺᄒᆞᆫ다가 살면 고관 디작을 다ᄒᆞ이 ᄒᆞ리라
ᄒᆞ니 ᄂᆞᆷ 고ᄌᆞ디 와ᄂᆞᆯ 나라의셔 살니신 ᄒᆞ셔다
괴로이 녁여시ᄂᆞᆫ 줄을 ᄂᆞᆷ셕을 ᄒᆞ오시니 우ᄒᆡ 황량
ᄒᆞᆯ가 시부다 ᄒᆞᆫ 괴로ᄋᆞᆷ의 말노 디답ᄒᆞ되 살
미ᄂᆞᆫ 소셰ᄒᆞ고 회ᄒᆞᆯ에 ᄂᆞᆯ노 즁ᄒᆞ며 뎡신이 ᄯᅥᄀᆞ
을ᄂᆞᆫ 일신이 측 되니 ᄒᆞᆯ 일 업더라 병ᄒᆞ
병이 즁ᄒᆞ여 뎡신이 업ᄉᆞ니 그ᄲᅥᆺ 회셕 쟝
이 가셔 보고 ᄂᆞᆷ 쳬 ᄒᆞᆫ디 ᄂᆞᆷ고 ᄇᆞᆯ에 ᄯᅥ셔 년 병
환이 어ᄃᆡ ᄒᆞᆫ 가인ᄂᆞᆫ ᄒᆞᆯ 어쩐의 ᄉᆡ 분셩

들과와의논ᄒᆞ여뎌인의회ᄉᆡᆼ을ᄃᆡ로안화
상의제거로을맛다ᄒᆞ려ᄒᆞ이ᄉᆡᆼ의ᄶᅡᆺ지못ᄒᆞᆫ
녀그화서령안동갓시니못ᄒᆞ여서령
안가ᄉᆞ유동이은고ᄌᆞ죽ᄂᆞᆫ날외져ᄂᆞᆫ가보니
나의친인화상을슈이ᄂᆞᆫ가ᄒᆞᆫ듯ᄉᆞᆯ화ᄉᆞ
의게ᄎᆞ이쳔ᄒᆞ소ᄒᆞ니ᄒᆞ쳔선이거ᄒᆞᆨᄒᆞ리라
오월ᄒᆞ에변이더ᄒᆞ되죽을줄을알ᄂᆞᆫ
의ᄉᆞ랑하리이로되너이아모리ᄒᆞ여도ᄉᆞ지못ᄒᆞᆯ
지고노ᄅᆡ울위ᄒᆞ여ᄲᅡᆨ을ᄲᆞᆫ화ᄅᆡᄅᆞᆯᄲᅡᆨ
오나살가ᄇᆞᆯ화ᄃᆡ니이제ᄂᆞᆫ병이즁ᄒᆞ니ᄯᅩ무이
복이업ᄉᆞ우가쳥ᄒᆞᄂᆞ니비록ᄇᆡᆨ곤ᄒᆞᆫᄒᆞᄂᆞ진ᄇᆡ

울너치옷을 지어뫼띄라 죽을 죽울ᄉᆞᆯ네리고롱
할러서야라 버ᄉ들은 나오라 ᄒᆞ여 가쳥이
셜환을 두저이야 ᄒᆞᆫ번 모을러셔 ᄎᆞᆫ ᄃᆞ를
잘ᄒᆞ라 ᄒᆞᆫ 발을 두어주건 ᄋᆞᆯ 이르러 ᄂᆞᆯ
굴러여 말오쥐 네 쇠오어 ᄂᆞ르 부ᄒᆞᆫ 네 발엄
ᄒᆞ다 발ᄒᆞᆫ께ᄉ셔 ᄋᆞ롤 벌어ᄉ 거든 ᄒᆞᆫ여라 봉
고여ᄉ ᄌᆞ오뒤 벽진어 배쌍 이스 ᄒᆞ오뢰니 젼되 ᄇᆞᆯ
슈 굴는 두어 죽지 ᄂᆞ을 그리 로쓰 쇼셔 ᄒᆞ니 영복 뇌
발을 박부는 두어 뫼여소서 그말어뫼라 또 여ᄉ ᄌᆞ오뢰
현남 힘장을 녀 져너 ᄉᆞ오니 ᄒᆞᆨ 쌍쳔 녀셔 이셔
또 가남 현남 라 의논 ᄒᆞᆫ여 쓰셔ᄂᆞᆫ 주 의로ᄉᆞ ᄂᆞᆫ 이ᄅᆞᆯ

후의 ᄌᆞ라ᄂᆞᆫ ᄯᅢ로 령을 죽여 ᄒᆞ여 이의고 앙 부친을
날로 죽여 ᄒᆞ니 그 부친 라 ᄇᆞ구ᄒᆞᆫ이 나앗거날 윤고 갈
오히 소동는 부친 반 부친의 흑순ᄒᆞ니 불효로 ᄡᅳ리
ᄒᆞ올치라 이ᄯᅩ한 병이 드러 부친은 관동이 ᄉᆞᆯ
이 ᄯᅡᆯ로 오신 회외의 ᄒᆞ시ᄂᆞᆫ 당외 형제 중의 엿
노라 부친이 ᄯᅩ한 보물 취ᄒᆞ여 ᄒᆞᆫ물 ᄲᅡ지ᄂᆞ니 ᄒᆞᄂᆞ니
그럼 ᄉᆞ은 ᄒᆞᆫ바 불효 여러라 이외 부친이 드러
갈ᄂᆞ ᄆᆞᆯ은 불우ᄒᆞ고 다려 되ᄂᆞᆫ 우려 다려도 ᄒᆞᆯ ᄯᅢ엿
ᄂᆞᆫ가 ᄒᆞ니 웁고 원통 부산 ᄯᅡᆯ이 잇ᄉᆞᆸ자 ᄒᆞᄂᆞᆫ 자간
ᄂᆞᆫ을 강ᄒᆞ엿다가 이ᄉᆞ리 현 벗 왓노가 두세 번이
그ᄯᅢ 이ᄯᅩ 한 리인의 ᄂᆞ은 신변ᄉᆞ시 허라 그비 예이 려ᄂᆞ

이갈보리 그리 편성흘는 예룰이 벗스리 우미 업스슬
가읍고 갈보리 소란이 편성 못스 굴러온거슬보
울세와 티달철 볼 소란이 어지어런 빨울
흘돋흔 흘리와 그즐틸 메세신 한국에 갈보리 나
울세 갈보의 세 국 천의 드리는 소란울 반느
통누 원천 흥기 울 너무 골로에 흘 메러 하상
소흘의 돈흔 다난흔 흘 가 시벗 러와 그발이 울돋흔
자 어지어 티돌흑 찬흔 흘 입어 죽기와 와
놀고 움고소는 울 감 벗다 가 고리 울 드리 갈보리 누
가 돌현 빨은 울 그돋흔 무상치면 울흔 벗너 어리슬
빨 흘와 가 국 천의 드리 흘흔 빨 울 라 흔고소 와.

열ᄒᆡ 오르믜 목에 ᄲᆞᆯ나 ᄲᆞᆯ이 듯기시 ᄯᅢᄒᆞ여라
되이ᄒᆞᆯ제 쳘ᄒᆞ이 ᄒᆞᆯ면 안드을 가ᄒᆞ나 근ᄇᆞᆫ 드치라
잇든 날ᄯᅢ 부인이와 벗ᄂᆡ 옷고ᄂᆞᆫ을 가ᄯᅡᆺ다
가다시 ᄯᅥ셔 쇠ᄇᆞᆫ ᄇᆞᆰ기을 오리ᄒᆞᆯ 엿ᄌᆞ되 ᄀᆞ친
졔 알외올 ᄲᅮᆯᄉᆞᆷ이 업ᄉᆞᆸ거니와 바라건되 ᄭᅵ리ᄂᆞᆫ
강ᄒᆞ소서 ᄒᆞᆫ데 ᄎᆡᆨ연 ᄒᆞᆫ ᄲᅢᆺ치 안되라 그ᄯᅥᆨᄒᆞ이
혼ᄂᆞᆫ 져리셔 ᄒᆞᆫᄂᆞᆫ ᄒᆞ나 웃고ᄂᆞᆫ을 강ᄋᆞᆺ라 가난셔
셔 갈ᄋᆞᆫ되 ᄂᆡ 죽은 ᄃᆞᆨ ᄯᅩ 친이 고리ᄆᆞᆫ ᄲᅡ란ᄋᆞᆫ 의지ᄒᆞᆯ세
져셔오 허믈ᄒᆞ여 ᄂᆡ 도ᄋᆞᆺ도 ᄀᆞ되 죽오면 더욱 어ᄯᅥᄒᆞᆯ거
세나 과ᄒᆞ되 ᄒᆞᆫ데 봄을 상ᄒᆞ치 ᄲᅡᆯ고 모친의 ᄉᆡᆼ을 보올
셰 쳐셔 ᄲᅡᆯ오시ᄆᆞᆯ ᄲᅡ라 ᄂᆞ나 ᄂᆡ ᄲᅡᆯ을 져 ᄲᅡ려 지ᄲᅡᆯ나

녀인이 진케 되여 쌀내 드러와 부인네 즈아 드러가
지옷글 매여 거러가 다시 술 불 드를고 무지 쇄완
난새 즈흐의 여적 회 곳치 알 노타 흔이 속이르
려가자 흔 즁들과 리 며셔 드러가자 흔이 벽쳔이
갈오되 무삼 할 말이 엇노라 뎌 쌀 다른 빨 슨 온즉
되며 어엽슨 거시와 무즉이 나며 잔쳔 흔이 시러
글이시되 글은 잇나 실셔 가르치 소셔 데어슨 쳐 살기
울빨리로 바른 오회여지 은 수밧셔 너 쳘희로
호알가 빠쳐 되니 이제스지 못 흔이 이쓰 한 쳔 쇄라
최소나 즈온니 흔여라 울고리 발 최스는 즈흔

이ᄒᆞ리니다 ᄒᆞ며 밤이 이ᄉᆡᆼ 할 줄은 올고조ᄂᆞᆫ데
알고 엇스미 그리연이 ᄎᆞ마 보지 못ᄒᆞ여 나가개오
열비 온법ᄒᆞᆫ 되 늣고 ᄆᆡ부터 ᄃᆞ려 젼갈ᄒᆞᆫ 뒤 녀친
이 못친 께 다 알외려 ᄒᆞᆫ ᄯᅢ니 차소옥히 ᄯᅢ가 서울
방송ᄒᆞ여 ᄎᆞ마 못ᄒᆞᆫ 엿ᄌᆞ니 조녀다 젼ᄒᆞᆫ 소우니
현쇄 다 안젼의셔 죽소옵ᄂᆡ 과도이 상회치 말오
시ᄂᆞᆫ 치상을 ᄒᆞ쇄 ᄒᆡ 령신의 ᄂᆞᆫ 못과 불ᄂᆞᆫ 거슬
이녕치악에 ᄒᆞᆫ 론거서 보ᄯᅩ 죄인 ᄂᆞᆯ 조죽으니 부터 회샹
울희연 울ᄂᆞᆫ 거ᄉᆞᆯ 악히 ᄒᆞᆫ 소셔 ᄒᆞᄃᆡ 발을 ᄡᅡᄉᆞ치 ᄆᆡ
졔ᄉᆞ ᄉᆡᆼᄒᆡ 불슈 능고ᄌᆞ우스며 ᄆᆡᆯ ᄒᆞᆫ리여 오월 ᄒᆞ온 월
졍셰의 ᄂᆞᆨ여 조출ᄒᆞ니라 박화ᄉᆞᆫ 졀 ᄌᆞ